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은 변함이 없으시며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월 23일 (토) 제 156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6 “뜨거운 화약고” 중동, 여전히 지구촌에 영향!

뉴스위크, ‘사우디/이란 갈등-미국 대선’ 을 중동 좌우 9가지 이슈 집중 조명

“세계 지정학의 핵”인 중동이 요동친다. 특히 중동의 양대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면충돌하면서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세계적인 테러 위협과 그 근원으로 꼽히는 시리아 내전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각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본산을 자처하는 사우디와 이란이 외교관계를 단절할 만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불안한 중동 정세의

주요인 중 하나인 종파 갈등이 심화되고 양측 간의 대리전 확대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뉴스위크는 최근 중동의 운명을 가능할 주요 9가지 이슈를 보도한다(NINE ISSUES THAT WILL SHAPE THE MIDDLE EAST IN 2016).

1. 종파 갈등의 심화

지난해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는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족 반군을 상대로 한 수니파 동맹국 연합의 공격을 주도했다. 예멘의 반군은 사우디 동맹세력과 아부드 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또 사우디는 시리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권과 싸우는 반군에 자금을 대는 동시에 ‘테러단체’에 맞선 이슬람 군사동맹을 결성했다. 이란의 시아파 지도부에 맞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이 중동에서 패권을 노리는데 대한 사우디의 두려움은 지난해 7월 이란 핵협상 타결 후 더욱 커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란이 핵협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란과 외부 세계의 관계가 서서히 정상화될 것이다.

과거 서방의 제재로 얼어붙었던 투자가 하산 모하니 이란 대통령의 온건 정부로 흘러 들어가 경제가 되살아나면 지역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이란의 해외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 서방의 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이란과 사우디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두 나라 사이의 종파 갈등은 올해도 예멘과 시리아 같은 대리전 무대에서 지속될 것이다. 중동 지역 전체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다.

지난 1월 3일 사우디는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 하루 전 사우디는 자국 내 소수 시아파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47명을 테러혐의로 집단 처형했다. 처형자 명단에는 사우디 시아파 지도자 셰이



2016년 지구촌은 여전히 중동문제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 님르 바크르 알-니르가 포함됐다. 사우디 법원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알-니르가 시아파의 반정부·민주화 시위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순한 외부세력을 끌어들이 왕권에 불복종하고 공권력을 공격했다고 판단하고 2014년 사형을 선고했다.

알-니르 처형 소식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는 같은 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소재한 사우디 대사관과 북동부 마시하드의 사우디 총영사관에 보복 공격을 가했다. 시위대는 사우디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국기 등을 끌어내렸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로 맞대응했다. 사우디 동맹국인 바레인도 4일 이란과 외교 관계를 끊었다.

이사 알하마디 바레인 공보부 장관은 이날 “바레인 주재 이란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으로 떠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수단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끊고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테헤란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해 이란과의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다.

이처럼 중동의 위기가 깊어지자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종파 갈등을 겪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였다.

(3면으로 계속)

속 깊은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소그룹이 좋다!

리더십저널, 얕은 관계 넘쳐나는 세상에서 깊이 있는 모임 만들기 소개

예전과 달리 인터넷, SNS가 발달해 더 쉽게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고, 이미 옛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같은 모임의 사람의 사생활이 어떤지 더 쉽게 아는 세상이 됐다.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더 많이 만나고 있는 지, 아니면 더 만나고 싶어지는지, 쉽게 말할 수 없다. 더 쉽게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고, 마음만 먹으면 더 쉽게 연락하고 볼 수도 있는 시대에 살며,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은 인맥을 관리해야 한다. 연 말연시 많은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수많은 인맥들 중 진정한 더 만나고 더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소그룹 즉 구역이나 다락방 아니면 봉사하거나 섬기고 있는 부서는 더 자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인가?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더 쉽게 얕은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싶어 한다. 깊이 있는 만남은 오랜 시간을 공유하는 데서 온다. 그렇다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만남이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소그룹도 새 멤버를 만나면 깊이가 없게 될까?

어쩌면 지금의 소그룹이 이미 만나면 기쁘고 즐거우며, 더 자주 보고 싶은 소그룹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성격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활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이 다 고만고만 비슷하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보자. 이러한 요소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그룹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깊음’을 가진 요소는 아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더 깊고, 더 오랜 시간의 경험을 공유한다. 우리는 ‘깊이’를 이런 말로 사용할 수 있다. 깊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란, 예수님과 그 성품,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다. 이는 우리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영원히 이어갈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만남이다. 그렇기에 개인 간의 차이가 크더라도, 개인 간의 공유한 시간이 적더라도 우리는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연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깊이 있는 소그룹을 위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이런 깊이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각각 먼저 깊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의 노력과 소그룹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하나를 이수하고, 설교 환편을 들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깊은 사람을 양육하셨을까? 단순하고 깊이가 없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되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소그룹이 깊이 있는 모임이 되어 가는 지 확인하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봐야 한다:

첫째, 우리는 소그룹의 목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그룹의 목표가 많이 모이는 것인가? 아니면 만나면 즐거운 것인가? 깊이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라면 인원은 많이 늘지 않을 수 있지만, 튼튼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 모였던 오천 명의 사람이 다 흩어져도 개이치 않았었다. 그에게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양육할 소수의 제자들이 중요했다. 소그룹은 이 목표를 주기적으로 되새겨야 한다.

(9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북한, 14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 교수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 노봉린 박사



대담 선교는 하나님의 일...

새성전 입당예배 및 임직예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크신 은혜로 저희 교회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입당예배와 권사 임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입당하기까지 기도와 사랑과 건축헌금으로 격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동참해 주신 모든 교회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목사 조응철 위 성도 일동



담임목사 조응철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오후 5시
장 소: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702)579-7576,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북한, 14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 고수

오픈도어 '2016 지구촌 기독교 박해수위 발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국가(IS), 보코하람(Boko Haram)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심화, 독재자의 횡포가 주된 핏줄 요인이다.

북한은 14년째 기독교 박해 가장 심한 나라로 연속 선정됐다(North Korea Gets Competition: The Top 50 Countries Where It's Now Hardest To Be a Christian: Hermit Kingdom losing lead as modern persecution hits record high, according to 2016 World Watch List).

이것은 전세계 크리스천들의 박해지수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이며, 1991년부터 매년 제공돼왔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 생활의 범주에서 발생된다. 조사 방법과 결과는 IIRF(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독되며, 모든 정보는 오픈도어(Open Doors)로부터 제공된다.

조사기간(2014년 11월 1일-2015년 10월 31일)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랭킹 10위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92점), 이라크(90점), 에리트리아(89점), 아프가니스탄(88점), 시리아(87점), 파키스탄(87점), 소말리아(87점), 수단(84점), 이란(83점), 그리고 리비아(79점) 순이다.

현재 크리스천에 대해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는 북한으로, 2016년에도 여전히 14번째 연속 오픈도어 박해수위(World Watch List) 1위를 차지했다.

에리트리아와 파키스탄이 각



이런 과격하고 큰 테러는 이곳에서 매일 일어나는 기독교인 여자아이들의 유괴, 강간, 강요되는 결혼과 개종과 같은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파키스탄 내의 3백80만 기독교인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살아오고 있다.

박해국가로의 진입 : 니제르, 바레인

순위 50위 안 국가들의 박해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대략 5점 정도 올랐다.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신호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박해 순위에서는 단지 두 국가, 니제르와 바레인이 각각 49위와 48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니제르 내 보코하람(Boko Haram) 세력의 침투와 확장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공포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바레인에서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슬람법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랭킹 50위에 새롭게 진입한



시론

"대박 신드롬을 경계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새해 벽두부터 미국은 파워 볼 열풍에 휩싸였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당첨금인 15억8천6백4십만불(약1조9천2백4십7억원)까지 치솟은 '파워볼'이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테네시에서 각각 1명의 당첨자를 냈다.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범국민적 신드롬이 일고 있다. 북권이라 불리는 "로또"(lotto)는 이탈리아로 "행운"이란 의미인데, 북권의 시초가 로마시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불리게 된 것이다. "lotto"의 사전적 의미는 숫자 카드 맞추기 놀이이다. "파워 볼"(power ball)은 6개의 볼을 뽑게 되는데, 처음 5개의 볼은 69개의 white ball에서 선택하게 되며, 나머지 1개의 볼은 26개의 red ball에서 뽑게 되는데, 총 6개의 볼에 새겨진 숫자의 일련번호가 맞을 때에 1등으로 당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첨된 확률은 (100만분의1)의 300배(3억분의1)이기에, 로또가 실상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북권 열풍의 근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건전한 레저문화 육성이 라든가 효율적인 공적 기금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함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레저나 도박이나 하는 문제의식들은 정부의 복권사업 추진배경과 국민들의 사행심, 그리고 수익분배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로또 열풍의 모습은 일부 국민들의 끝없는 사행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는 '꿈'과 '희망'을 넘어서 중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로또 번호 조합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수십만원의 월급을 털어 복권 판매소로 달려가는 소시민, 신기(神氣)를 받으려 판매소에서 곳까지 연달아 하는 모습들, 일손을 놓은 채 '로또 펀드'를 만들어 수백만원 상당의 공동구매를 하는 직장인까지 기존 복권문화의 행태와 전혀 다른 일대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행여 당첨이 되더라도 갑자기 얻어진 엄청난 행운은 자칫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필자가 25년 전에 목회했던 어느 소도시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다. 한국 여성 한 분이 어느 날 1,700만불 복권에 당첨이 되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했는데, 처음에는 이러 저러한 곳에 일정 금액 도네이션하는 선한 모습들이 지역 신문에 연일 실리게 되면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필자가 가끔씩 만날 때면 당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들과 나란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이후 그녀의 삶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더니 급기야는 빈털털이가 되어 중고 자동차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필자가 목회했던 교회 목사님의 co-sign을 받아 마련했다는 쓸쓸한 소식을 전해 들게 되었다. 2002년 3억1,500만 달러를 탔던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민 잭 윌테이커는 스트림 클럽에서 돈을 노린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고 사랑하던 손녀딸이 의문사 했으며, 5년 후에는 은행 잔고가 텅 비어버린 낭패를 겪어야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고 고백한다. 심지어 갑자기 다가온 행운으로 정신질환을 겪다가 자살하는 자들도 있음을 보여 준다.

왜 엄청난 행운이 이처럼 자칫 불행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일까? 어느 심리학자나 교수에 따르면 78년 미국에서 100만 달러(약12억원)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7명 등 당첨자 22명의 1년 후 행복점수를 비교한 결과 당첨자의 평균 행복점수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일반인(3.82점) 척추부상자(3.48점)에 비해 각각 낮았다는 것인데, 이는 주변으로부터의 시달림과 당첨 이후의 삶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보통사람이 행복하게 느끼는 것에 대한 감흥을 잃게 되는 탓 등으로 분석됐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당첨 당시 전반적인 행복감은 급격히 상승했지만 몇 개월 후에는 당첨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도 지적한다. 대박을 감당할 만한 관리능력,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대박은 자칫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 로또 열풍에 교인들의 마음이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적 계명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대박의 삶이 아니라 "옛새 동안 힘써 일하라"(출20:9; 신5:13)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마6:11)이다.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가 없어서"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행한 삶으로 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어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참고: 팀 켈러, "일과 영성"-cp.1).

소망찬 새해를 맞아 갑작스런 행운을 꿈꾸는 대박 신드롬을 경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뒷밭에서 성실하게 땅 흘리며 씨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일구어보자.

심화 되는 기독교 박해...7천명 희생, 2천3백 교회 공격당해 개인 삶, 지역사회, 국가, 교회 생활 범주에서 적대적 경험발생

각 3위와 6위로 진입했으며, 무법지대인 리비아가 10위에 최초로 진입하게 됐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종교적 국수주의가 계속 주된 박해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독재적 편집증이 급격히 박해요인으로 부상했다. 오픈도어 정보원들은 올해 순위 50위 국가들의 박해 정도를 작년과 비교해 2.8포인트 상승조정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사용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뉴스 미디어를 통해 박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며, 2)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의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3)세계의 교회들이 오직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과 폭력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고, 기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극심한 박해 국가로의 부상 : 에리트리아,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북한"이라는 악명을 가진 에리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 언론, 법, 그리고 인권 권리에 대한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들 중 하나로 진입했다. 박해의 가장 주된 원인은 대통령 아페레리키의 독재 편집증이다.

이 나라에서 감히 기독교인들의 처분에 대해 말하거나 항의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투옥되거나 체포된다. 에리트리아정교회의 전 주교 아부네 안토니우스는 그의 공식 발언 때문에 2007년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2014년 11월부터의 유엔난민기구 (UNHCR) 보고에 의하면, 보트를 이용해 이탈리아에 도착한 총 난민의 22%가 에리트리아인이다. 에리트리아기독교인들은 탈출 시에, 인신매매꾼이나 이슬람 무장단체의 무자비한 폭력의 손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은 랭킹 6위로 올라섰으며, 나이지리아와 함께 폭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의 고난과 억압의 정도는 높다. 2014년 11월 4일 폭도에 의해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 부부가 죽었고, 2015년 3월 15일 라호에 위치한 두 교회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25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두 국가는 지난해 순위 국가였던 스리랑카와 모리타니를 순위 밖으로 몰아냈다. 그러나 순위 밖으로 밀려났음에도, 이 두 나라의 박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체된 새로운 정부로 인해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한 보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교회들은 여전히 불교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개교 30주년 기념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MBA - 리더십 전공
Doctor of Leadership - 사역리더십 전공

MBA Degree (48 Credit hours) Leadership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Degree Program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Credit)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DL Equivalent Program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자격: 1. 학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자 (전공에 관계없음)
2. 연구과정: 수업은 동일하며 전문분야 종사자, 학력제한 없음.

2016년 1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 중 20명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학위취득 방법
1)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발행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으로 학점 취득 중
인제든지 미국에 유학와서 남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하고 1년 동안은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기회 가능
3)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4)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학위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입니다
미국연방정부 교육부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전문가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전공무관) 인턴십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 좋은 기회: 선교사 안식년에 J-1 비자를 받아 본교 세계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J-1 VISA 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희철교수 (hcleee@midwest.edu)께 문의 바람.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636) 327-4645. usa@midwest.edu

2016 “뜨거운 화약고” 중동, 여전히 지구촌에 영향

(1면에서 계속)

그러나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우디가 같은 수니파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원했고, 1987년 7월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에서 벌어진 이란 순례객과 사우디 경찰과 충돌로 관계가 경색되면서 드디어 같은 해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이란 최고지도자는 사우디의 보수 수니파 이념인 와하비즘을 이단이라고 비난했다. 그 여파로 1988년부터 약 3년간 양국의 국교가 단절됐다.

그 후 양국 지도자가 외교 관계 복원에 힘썼고,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이란이 이라크를 비판하면서 사우디의 편에 선 것을 계기로 1991년 외교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었다.

2. 이라크군과 IS의 모순 전투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공습과 현지 수니파 부족 민병대의 지원으로 이라크군은 지난해 말 IS가 장악했던 라마디를 탈환했다. 이라크와 미국은 이제 모순을 눈물 흘린다. 모순은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2014년 6월 ‘칼리프 제국’ 건설을 선언한 곳이다. 시리아 동북부의 라카와 함께 IS의 주요 거점인 모술은 라마디 크기의 3배로 쿠르드족 민병대와 이라크군이 탈환하기가 훨씬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올해 모술을 탈환해 IS에 ‘치명타’를 안기겠다고 공언했다.

예측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지만 올해 주목해야 할 대전투는 모술 공격일 듯하다.

3. 시리아 내전 평화협상

오는 3월이면 시리아 내전이 6년째로 접어든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반군 사이의 평화협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반군 대표가 누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평화 제안은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빈의 세계 주요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1월의 협상 개시부터 휴전, 선거 후 통합 정부 구성까지 2년간의 일정이 끝자다.

유엔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협상에 참여하든 배제되든 시리아에 우호적인 러시아-이란과 서방 주요국이 심한 갈등을 겪을 듯하다. 올해 더 많은 외교적 노력과 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시리아가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치의 종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관측통은 올해 말까지 해결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다.

4. IS의 리비아 공략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IS 거점을 계속 공습하고 이라크군과 쿠르드족 민병대가 IS 장악 지역을 차츰 탈환하면서 IS와의 전투는 중동 외부 지역인 북아프리카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IS는 리비아의 최대 원유 수출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시르테의 장악을 강화해 예비 거점을 확보했다. 리비아는 통합 정부 구성이 제안됐지만 권력 공백으로 IS가 세를 확장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IS가 북아프리카에서 약진하면서 리비아의 경제가 위협에 처할 전망이다. 북아프리카에서 반나절 항해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도 위협해질 것이다.

프랑스는 리비아 상공의 정찰 비행을 시작했고, 미국은 지난해 11월 리비아의 IS 지도자를 제거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국제사회는 올해 리비아에서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스라엘 vs. 헤즈볼라



지난해 12월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 사미르 칸타르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공습으로 사망하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재정적·정치적 지원을 받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제휴했다. 나스랄라는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식을 찾아 칸타르의 죽음에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헤즈볼라는 신의 가호 아래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대의 경계를 강화했고, 이스라엘 방위군(IDF) 참모총장은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이 있을 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설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올해 양대 세력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일촉즉발의 가자 지구

2008, 2012,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후 가자 지구는 2000년 제2차 “인티파타(팔레스타인인의 봉기)” 이래 지난해 “가장 조용한 해”를 보냈다. 하마스는 2014년 여름 50일 전투 후 시행된 휴전을 계속 지키며 경쟁 세력인 이슬람 원리주의 분파 살라피스트의 대이스라엘 로켓 발사와 거리를 뒀다. 그러나 중동 전문가인 대니얼 니스먼 레반트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 2000명 이상이 희생된 지난 전투 이전의 터널 시설과 로켓 병기고를 복원을 피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란 후원자들과 갈수록 소원해지고 전력 차단을 둘러싸고 민중 소요가 발생했으며 이스라엘의 공격 후 재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올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니스먼 대표는 내다봤다.

7. 팔레스타인의 내전 불안

마무드 압바스(80)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005년 선출된 후 4년 임기를 10년으로 늘렸다. 지난해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을 휩쓴 홍기 난동과 유혈 충돌은 팔레스타인인이 압바스 수반의 ‘외교적 인티파다’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믿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의 3분의 2가 압바스 수반의 퇴진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 권력을 강화하며 선거를 미뤘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가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위기는 서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위태롭게 한다.

지난해 압바스 수반이 퇴진할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올해 그가 물러난다

면 팔레스타인에서 10여 년만에 처음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정권 교체로 팔레스타인의 평화 염원이 되살아 날 수 있다.

8. 터키 내전

지난해 6월 터키 총선에서 집권여당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뒤 반군 쿠르드노동자당(PKK)과의 2년에 걸친 휴전이 깨지면서 터키 동남부의 안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다. PKK 민병대가 터키 보안군을 공격하자 터키군이 보복했다.

지난해 12월 터키 동남부의 쿠르드족은 민주인민회의의 이름으로 자치권을 요구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르드족에게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 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 대응으로 터키 정부도 ‘쿠르드족의 테러’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면 실질적인 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9.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중동 정책은 상당히 달라질 듯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 그룹에 속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후보는 중동의 최대 이슈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각각 다르다. 트럼프 후보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해 파문을 일으켰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미국 국무장관으로서의 유산은 리비아다. 2011년 나토 주도로 무아마르 카다피 지도자가 제거된 이래 리비아는 분열되고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미국 공화당원의 90%는 미국의 IS 공습이 소극적이라고 본다.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인 중 69%는 IS 격파를 위해 이라크나 시리아에 지상군 파견을 원한다. 만약 오는 대선에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장악하면 미국은 지난해보다 중동에 훨씬 깊이 개입할 전망이다.

사자들에게 자행됐다.

조사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폭력으로 자신의 삶을 잃은 4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 중, 2천5백 명이 보코하람에 의한 것이며, 1천5백 명이 하우사 풀라니 무슬림 목축업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또 타라바 주에서만 최소한 3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의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 또



기독교 박해 부서의 디렉터 프랑스 비먼의 설명에 의하면, 보코하람 세력 외에도, 하우사 풀라니(Hausa-Fulani) 무슬림 목축업자들에 의한 잔인한 공격이 기독교인 농업 종

한 밝혀진 이러한 폭력에 관한 조사 결과들은 사실상 폭력의 잔인성을 50%정도만 들 어낸 것일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추정한다. 이곳에서의 폭력은 종교적 우월의식에 기

‘시편’ 은에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35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시명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성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죄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자였지만 공회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별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섬기고 저주를 섬기고 불행을 섬기고 죽음을 섬기어야 하는 불행한 나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나의 소원대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그를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세상 사람에게 가장 귀한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죄로부터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성별함을 받아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임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29:13)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막7:6).

오늘 우리가 성전에 가면 우리가 ‘무슨 좋은 말씀을 들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잘못된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의 성숙한 자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마음을 바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듣고 감상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의 시간으로 드러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더욱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 같이 항상 눈만 뜨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하는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에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영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두고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습관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사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서 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김의 삶의 저울에서 달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은 그의 삶의 상황이 부하고 평안하고 할 때에도,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섬김의 삶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 충실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여 그 은혜로 충성히 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였다고 하시는 평가를 받도록 새해도 더욱 뜻대를 그곳에 두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북한, 14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 고수

(2면에서 계속)

모리타니는 전 세계 공식적인 4개의 이슬람 공화국 중 하나이며,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여단(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AQIM)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행히도 폭력의 정도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폭력과 억압의 나라들

오픈도어 박해순위(WWL)는 매년 기독교인들의 박해 정도를 가능하는 도구라는 것에서 유일 할 뿐 아니라, 박해정도를 가능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하다. 다섯 가지 삶의 영역(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그리고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억압정도 와 강간, 살인, 교회방화와 같은 폭력 정도를 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박해정도를 가능한다.

오픈도어 기록은 전 세계 7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오직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관련해 죽임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2015년 박해순위와 비교했을 때 3천명이 증가한 기록이다. 이 통계는 북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와 같이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없는 나라들을 제외한 기록이다. 또한 보고서는 대략 2천3백 교회가 공격을

당하거나 손상을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숫자이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박해 폭력에 관한 뉴스 대부분은 잔인한 급진적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한 인종청소와 같은 것이다.

포염에 휩싸인 기독교인들 - 이라크, 예멘, 케냐

전 세계 분쟁 지역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아주 취약한 장소이다. 전 세계의 방송매체들이 전쟁과 폭탄테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국가들(IS)은 그들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국가들 안에서 사람들을 급진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 북 이라크(박해점수가 4점 상승, 2위)의 쿠르디쉬 지역은 모술(Mosul)과 니네브(Nineveh) 평지로부터 도망친 수천의 기독교 피난민들의 천국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기서 이라크 정부는 유력한 기독교인 밀집 지역에서 무슬림 가족들에게 줄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기독교 인구가 사는 지역 안에서의 이러한 “인구 역전 정책(Demographic reversal process)”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소수자로서의 불안감을 조성해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1점 차로 랭킹 10위 안에 진입하지 못한 예멘(11위)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사실상 모든 서구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했으며, 단지 수천의 용감한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교회는 간신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점점 급진적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케냐의 북쪽과 해안 지대는 박해가 5점

상승했으며 16위를 기록했다. 알 샤바브(al-Shabaab) 세력은 2014년 11월 22일 만델라발 버스 안에서 28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2015년 4월 2일에는 게리사 지역에 있는 147개의 기독교 대학 학생들을 죽였으며, 2015년 7월 7일에는 14명의 체석장 인부들이 살해당했다. 대부분이 처형적인 살해이며, 특별히 무슬림과 대치되는 기독교인들이 주 대상이다.

이런 현실은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며, 특히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억압이 높게 자리 잡을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아시아 - 테러 조직들의 감시와 통제로 인한 박해의 상승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 특히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테러의 위협을 가진 이슬람세력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랭킹 20위(작년 15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19위)이 새롭게 20위안에 진입했다. 대부분이 처형적인 살해이며, 특별히 무슬림과 대치되는 기독교인들이 주 대상이다. 교회는 간신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점점 급진적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케냐의 북쪽과 해안 지대는 박해가 5점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해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해서 해로운 것이 있다. 단적인 예로 사람도 가까이 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해서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멀어지고 있거나, 반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용기라는 사실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우화 가운데 '호저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다. 전신에 고슴도치처럼 가시 같은 털이 있는 호저들은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는다. 서로를 가시 같은 털로 찌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가까이 지내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찔리지 않고 또 추위에 이길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네 인간관계에서도 만일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누구와도 친해질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까지도 이런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봐 꺼려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벌을 받을까 두려워 적당히 믿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꿰뚫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3:20)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까워야 행복하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불행해진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 멀어졌다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부가 마음이나 감정이 괴리가 생겨 각방을 쓴다고 생각해보라, 아니 두 사람 사이가 더 멀어져 별거를 한다고 가정해보라! 그 부부가 행복하겠는가?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무던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믿음을 부인할 뻔했는데. 그 이

유는 바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평안히 지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인지 못마땅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그런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는지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했고 갈등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런 다음에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외쳤다. 시18편에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방패시라고 노래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기에 고난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그분 가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방패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해도 그분 가까이 있으면 막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나의 빛이시라고 노래한다. 하나님은 생명

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사망의 골짜기에 빠뜨릴지라도 그분 가까이 있으면 생명은 보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흑암의 골짜기에 방황할 때라도 그분 가까이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이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절망이요 어두움이고 무기력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태양과 멀어질수록 춥다. 태양과 먼 곳일수록 생물이 살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밤이 되고 태양 빛을 받는 시간이 낮이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서식한다. 그런데 행전17:28에는 우리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는나라 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왜 흔들리

는가? 하나님을 멀리서 아니 멀찍이 따르려는 유혹 호저 딜레마에 빠진 증상이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왜 예수님에 대한 맹세를 3번이나 흔들렸는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와 주님과 거리를 호시 탐탐 노려보고 있다. 조금만 거리가 생기면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마음을 우리 영혼을 흔들 어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양이 목자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양은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 위험도가 높아진다. 유일한 양의 살길은 목자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행히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2016년이 되길 바란다.

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고통 중이라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쌓아두신 은혜(시34:19)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히4:16)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누리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은혜는 값은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값은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찬양과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사43:21).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전도 대상이 없기에 하지 못할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은혜 갚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신34:29). 2016년도에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초/장

원영호 목사 (새창로교회)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나 새해의 삶은 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서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 봅니다. 정말 복된 생활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삶과 환경에 만족하고 행복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이리니컬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이 문명의 발달과 부가 있는 서구국가가가 아니라 경제지표로 봐서는 한참 아래에 있는 방글라데시라는 조사결과를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를 묻게 만듭니다. 방글라데시는 생활환경이 1960년대 한국의 청계천 판잣집과 같이 도로포장은 물론 안 되어있고, 하수와 오물이 그대로 도로변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이들이 해외, 특히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여 임금을 벌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동경하는 국가. 그런데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최고로 행복한 곳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많아도, 먹을 것이 풍성해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

대로 다니고, 누릴 것을 마음껏 누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는 시점과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한 부인이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로 다니고, 누릴 것을 마음껏 누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는 시점과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한 부인이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

본문에 보면 베푸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셨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한 일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 간음을 일삼다 잡혀온 여인, 사도바울 등 자격으로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공을 하여서 어머니께 각자 선물을 했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께 큰 차를 사드렸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차를 사드렸고, 막내는 무엇을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평소 애용하셨던 성경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시력이 저하되어 읽기가 불편하신 것을 감안해서 성경전체를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선물을 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집의 편지를 씁니다. "큰 애야, 넓은 집이 좋아서 다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둘째야, 차가 너무 좋구나. 고맙구나." "막내야, 너는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알고 보내주었니?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프라이드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

본문에 보면 베푸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셨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한 일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 간음을 일삼다 잡혀온 여인, 사도바울 등 자격으로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공을 하여서 어머니께 각자 선물을 했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께 큰 차를 사드렸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차를 사드렸고, 막내는 무엇을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평소 애용하셨던 성경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시력이 저하되어 읽기가 불편하신 것을 감안해서 성경전체를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선물을 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집의 편지를 씁니다. "큰 애야, 넓은 집이 좋아서 다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둘째야, 차가 너무 좋구나. 고맙구나." "막내야, 너는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알고 보내주었니?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프라이드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

본문에 보면 베푸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셨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한 일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 간음을 일삼다 잡혀온 여인, 사도바울 등 자격으로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공을 하여서 어머니께 각자 선물을 했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께 큰 차를 사드렸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차를 사드렸고, 막내는 무엇을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평소 애용하셨던 성경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시력이 저하되어 읽기가 불편하신 것을 감안해서 성경전체를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선물을 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집의 편지를 씁니다. "큰 애야, 넓은 집이 좋아서 다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둘째야, 차가 너무 좋구나. 고맙구나." "막내야, 너는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알고 보내주었니?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프라이드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

본문에 보면 베푸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셨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한 일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 간음을 일삼다 잡혀온 여인, 사도바울 등 자격으로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공을 하여서 어머니께 각자 선물을 했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께 큰 차를 사드렸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차를 사드렸고, 막내는 무엇을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평소 애용하셨던 성경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시력이 저하되어 읽기가 불편하신 것을 감안해서 성경전체를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선물을 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집의 편지를 씁니다. "큰 애야, 넓은 집이 좋아서 다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둘째야, 차가 너무 좋구나. 고맙구나." "막내야, 너는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알고 보내주었니?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프라이드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어

은혜뿐입니다! (시 31:19-24)

Advertisement for Shepherd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logo, admission information, and a testimonial from a student. The ad highlights the university's accreditation (ATS, WASC, ACICS) and its status as a Title 4 institution. It lists benefits such as financial aid, tuition assistance, and a variety of majors. A testimonial from a student named Chalsu Krafft is included, along with a list of programs and their credit requirements.

세상은 지식을 학문과 상식으로 여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알기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방꾼이 긴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을 보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4:6). 문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사람의 한 짐과 하나님의 한 짐의 격차 때문이다. 다시 말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천양지차(天壤之差)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정 여하에 따라 스스로 계산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다. 더하여 하나님은 보좌에 어떤 위치나 위협도 되지 않는다. 개미가 1m 혹은 100m의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하여 지축이 흔들리는가? 절대 아니다. 그저 개미가 떨어져 죽사

하남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으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욥2:3-6).

이 때 욕의 말이 바로 크리스천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이다.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죽었고 그 많은 재물이 다 사라지고 욕은 집마저 무너진 잿더미에 앉아 전신에 피진 종기의 고통을 겪어온 절그릇 조각으로 굵으며 신음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했다. 사탄의 충동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의 아내가 악에 빠져 “우리의 꼴을 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잘나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차라리 그 하나님 실컷 욕이나 하고 뉘저!”라고 충동을 해 두 넘어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욕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지니고 있는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반증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롬5:7). 이 무슨 말씀인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란 없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란 없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직 죄인일 때, 죄를 회개하지도 뉘우치지도 용서받지도 않은 그 때에 하나님에게도 단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런 죄인을 위해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인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분은 하나님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

야 하는 이삭을 대신하도록 솟양을 그 자리에 예비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이삭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단장의 아픔을 삼키며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하는 고통을 알아주는 존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괴로워하시며 내어주셔야 하는 독생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이삭의 솟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양이 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그것이였다. 그 유일한 길이 곧 하나님의 선택이였다. 그 선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2:17)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唯一)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다. 둘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지에 대해 세상의 사전은 속임수를 썼다. 전지의 뜻에 ‘신불(神佛)은 모든 것의 것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불(佛)이 들어가는가?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럼에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작년에는 교통사고와 질병 등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어디 있나요?
-풀러톤에서 유 자매

A: 이제 2015년은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는 이제 지난 날의 과거의 아픈 추억, 패배의식, 실망감, 미움과 다름과 분열, 증오와 상처, 실패한 것, 이로 인한 낮은 자존감, 범죄한 기억 등 이런 생각과 감정의 쓰레기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고후5:17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 말씀합니다.

새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말합니다. 올해 어떻게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10-12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

이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이루고 고난 중에 기도해야

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소극적으로 금해야 할 것 2가지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금해야 할 것 2가지는 먼저 혀를 조심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혀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나의 한말로 인해 장래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내말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하게 놔두면 우리 입술은 야생마와 같아서 온갖 부정적인 말, 패배적인 말, 불신앙적이고 저주스런 말을 퍼붓습니다. 입으로 헛간에 절망적인 말을 퍼부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잠언 18:21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장래가 밝아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패배적인 말을 버리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만 골라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또 2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여기서 구하여 좇으라는 단어는 열심히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화목을 구하되 보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추구하며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꾼이 되면 안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피스메이커 즉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1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세상은 형통과 곤고 병행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고 삶의 역경을 돌파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장애물을 통과하였고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지식이 없어 망하는 세상

할 그 자리의 먼지 몇 알갱이가 1.2cm쯤 풀썩이다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 희망을 품어서도 안 되고 품는다 해도 절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보라.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의 고고서며 앓고 일어섬이 주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천상천하의 어떤 존재도 그것이 살아 있던 죽어 있던 상관없이 미동조차 할 수 없다.

욥을 시기하며 모함하던 사탄조차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여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니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니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욥1:6-12). 사탄은 자신의 호언장담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욥을 다시 고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충동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신실함으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꺾기 원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은 욥을 해할 계획을 꾸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탄의 꾀계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믿는 자들이 바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찬양(사43:7, 21 참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임을 욥은 알고 있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욥을 해하려던 사탄은 그로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을 것이고 욥의 아내 또한 그 말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褻瀆)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12:31). 사탄은 욥에게 해를 입히려려고 획책했으나 그것은 욥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훼방한 죄가 되었던 것이다. 사탄은 꾀계를 꾸며 사람을 모함한 줄로 알았으나 하나님은 절대 만흔허 여감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범한 것이다.

하기야 사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사탄의 마음에 욥만 교만인 원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심히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잠6:16-19)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앗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닐곱 가지를 새겨 넣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세상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분이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어지는 성경의 설명을 보자.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만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 17,18절에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표현한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은 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는지 알고, 그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들을 문민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즉, 영생을 소유하는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은 힘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 망하지 않고 흥하는 지혜가 된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로 내어주셨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독생자를 저울질하셨을 수도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이치일 때 하나님의 저울도 당연히 독생자로 기울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주셨다. 고통을 참고, 미안함을 참고 독생자를 쳐다보지도 못하신 채 눈을 질끈 감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을 것이다. 이를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과 견주려 하지 말라. 빌라도가 ‘너희가 원하는 자가 예수나, 바라바냐?’고 물었던 것에는 아무 아픔도 고통도 선택의 고민도 필요치 않았다. 나에게는 이 고를림의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는 정치적인 쇼는 빔넌 것이 못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독생자를 죽이는 고통을 이미 맛보셨다. 그것은 차마 할 일이 아니라 는 것도 익히 아셨다. 그래서 죽어

세상은 이에 침묵한다. 세상뿐 아니라 기독교도 침묵한다. 지식 때문이 아니고 이복 때문이다. 현실적인 유익 때문이다. 개도 물어가지 않을 타협인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 눈치나 보는 시시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침묵하는 것도 타협하는 것도 의미없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고백은 이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hanmac@cni153.org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

기독교학교 교장 청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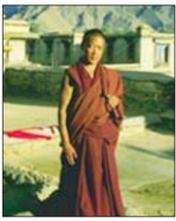
2016년도 가을 학기 크리스찬 학교 개강을 준비 할 교장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연단 시킬 교육의 사명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자 격 : Home School, 교장, 교사등의 경험이 있는 사명을 가지신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 제출처 : hlee@gcjc.org
- 접수마감 : 2월 10일
- 문의전화 : 310) 407-9427
- 담당자 : 이미정 총무 위원

주님의영광교회 학교설립 위원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티벳인(TIBETANS)



중국에 거주하는 15개의 티벳 종족의 통합 프로파일. 중국의 남서부는 티벳인들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 네팔, 부탄, 티베트(버마), 파키스탄과 접한 이 지역의 남쪽 경계가 되고 있다. 이 광대한 고원지대에서 중국의 티벳인들 다수를 볼 수 있다.

내에도 다시 많은 하부 집단이 있어서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산다. 사람들의 이주와 상당한 정치적 발전을 거치면서, 티벳은 민족학적인 면에서 매우 복잡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벳은 용케도 그 단일성을 잘 유지하면서 그 오랜 역사 동안 외국의 직접 통치를 무사히 피해왔다. 이는 아마도 험한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고립, 티벳인들의 강한 독립성 덕택일 것이다.

삶의 모습

수 년 동안 티벳은 변성한 독립 왕국이었지만, 7세기에 티벳의 일부가 몽골의 황제 징기스칸에게 정복당했다가 1911년에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통상 티벳인으로 불리지만 많은 하부 종족들이 있다. 주요 종족은 암도(Amdo)족과 캄(Kham)족 두 종족이다. 이 두 개의 종족

1950년, 중국은 티벳을 침공해 전략적인 국경지역을 장악하게 됐고, 1951년 중국의 일부가 되는 협정에 강제 서명해야 했다. 그 후로 중국은 티벳인들을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개인 농장은 집단농장(공동농장)으로 바뀌었고, 종교적 예배는 금지됐으며 거의 모든 사원들과 종교 기념물들이 파괴됐다. 또한 중국어가 공식 언어로 공포됐다. 1965년, 티벳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독립 지역이 됐지만 1980년까지도 지속된 중국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티벳인들의 경제를 곤란하게 만든 주요원인들이 됐다.

결국 중국은 이점을 시인했고, 중국정부의 이러한 과오에 대한 인정과 양보가 티벳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되살려 주었다. 성소가 다시 열렸고 티벳어와 티벳문화가 심한 탄압을 받지는 않았으나 개인소득은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저항이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이득은 없었다.

오늘날 티벳 사회는 2가지 기본적인 조직인 가족과 사회계층(평민, 사제, 귀족)이 있다. 일처다부제가 용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일한 예외는 일처일부제를 지키는 암도족(Amdo)이다. 하지만 부자나 귀족들 사이에선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등의 난혼도 있다.

티벳은 매우 황량한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의한 "우산효과(rain shadow effect)" 때문에 건조하며 겨울은 매우 춥다. 이러한 자연조건을 견뎌내는 능력이 티벳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거친 민족 중 하나로 만들었다.

티벳의 기후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라사(Lhasa)의 일상 기온은 섭씨 7도에서 영하 8도까지 이른다. 계절풍은 산맥으로 가로막히기 때문에, 티벳은 연중 강수량도 255mm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작 가능한 토지는 주로 동부와 남동부의 계곡지대에 제한되며, 고원에서 3,650미터(12,000피트)나 내려간 곳이고 이

곳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한다.

대부분의 티벳인들은 반 유목민으로 야크와 소, 염소, 양떼를 끌고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계속해서 이동한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곡물 경작과 가축 사육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작물은 보리다. 농부들은 야크나 야크와 소의 잡종인 조(dzo)를 이용해서 밭을 갈다. 가족의 젖을 짜서 버터를 만들며, 가루로 빵은 보리와 버터를 섞어서 차에 넣어 "참파"(tsampa)라는 요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티벳인들의 주식이다.

신앙

기원전 3세기와 1세기 사이,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최초로 중국에 불교를 전파했다. 모든 티벳 종족들 가운데 한 종족인 부리그족(the Burigs)만 무슬림이다. 나머지는 거의 탄트라야나 라마 불교(Tantrayana Lamaistic Buddhists)이며, 소수만이 샤머니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의례적인 불교는 4가지의 주요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라마불교다. 대부분의 종족들은 같은 종교력(曆)을 사용하며, 또한 비슷한 형태의 매장 방식을 사용하는데 수장, 나무 밑 매장, 화장과 같은 것이다. 모든 불교 신자들은 바른 생각(정도), 헌물(獻物), 자기 부인 등으로 죽을 때 영혼이 "열반"(nirvana)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노래와 의식, 제사를 드려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또한 죽음과 환생의 계속적인 순환을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티벳 종족들 대부분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그들의 다양한 방언으로 된 라디오 방송도 없다. 2,000명도 채 안 되는 티벳 성도들과 제한적인 기독교 자원이 전부인 이 티벳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희망은 아주 미미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봅니다”... 시력 잃은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 기사의 사진제임스 패커 리젠트칼리지 명예교수는 최근 시력을 잃은 후 인터뷰에서 “나이들은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자”고 말했다. 사진은 2014년 미국의 한 출판사가 제작한 영상에서 패커 교수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모습. 유튜브 동영상 캡처



금세기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J. I. Packer) 리젠트칼리지 명예교수가 최근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미국 개신교 단체인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에 따르면 패커 교수는 지난해 성탄절 즈음, '황반변성'에 의해 실명(失明)했다.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황반부에 이상이 생겨 치료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경은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하지만 패커 교수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복음연합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안다. 실명은 '본부(headquarters)'로부터 내려온 명백한 사인이 아니겠느냐”며 자신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 있음을 담담히 밝혔다. 패커 교수는 올해로 89세(1926년생)이다. 매일 30분간 천국을 묵상하고 있으며, '성경 암송'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는 '나이 들'에 대해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욕기 1장 2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는 거의 아흔 살이 됐다. 이제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라며 “일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했다. 어떠한 의심도 없다”고 했다.

패커 교수는 삶 속에서 구약의 '전도서'를 통해 지혜를 얻었다. 그는 젊은 시절 냉소주의에 빠져있을 때 전도서를 읽고 치유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전도서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전도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 석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째 성경 묵상과 암송을 반복해온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목적 그리고 일하심을 더욱 집중하게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패커 교수는 생명력 있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척교회는 은혜의 교리와 은혜의 삶을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안의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교회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즘 교회들이 제도와 교파적 경계를 초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교회다움(churchliness)을 향한 시도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교회 안에 만연된 개인주의 극복 대안으로 청교도들의 개성(individuality)적 신앙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청교도들은 교회에 충실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교회를 세웠다”며 “청교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Communion with God)를 가장 중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교회를 향해 4가지 단어로 권면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Glorify Christ every way).

패커 박사는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와 함께 20세기 복음주의의 대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79년부터 교수로 활동하며 개혁적 복음주의 신학의 지평을 넓혀왔다. 300여권의 책과 사전 편집, 기고문 등을 써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 등 '지식' 시리즈로 유명하다.

목회자 사임한 미국 교회 세 가지가 없었다

‘안식년 없음, 상당 부재, 미래목회에 대한 청사진 실종.’ 목회자가 사임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65세 이전에 교회를 떠난 목회자 7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에 대해 안식년을 제공하고, 적절한 상담 기회를 부여하며 미래목회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은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교회, 루터교회(미조리 시노드), 남침례교회 산하 목회자들이었다.

조사(복수응답)에 따르면 목회자가 사임했던 교회들은 적절한 상담자가 없었고(27%), 교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록한 문서가 없었다(22%), 목회자를 위한 안식년 계획은 부재했고(12%) 교인 상담 사역이 없거나(9%) 목회자 가정을 지원하는 그룹이 없었다(8%). 이 모든 것이 없었다고 응답한 목회자들도 48%나 됐다. 교회를 떠난 목회자들의 3분의 2(63%)는 10년 이상 담임목사를 지냈다. 이들은 다른 사역지로 옮긴 이후에도 담임목사를 이어갔다(52%). 그러나 29%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난 개인적 이유는 ‘소명이 변해서’(40%) ‘교회 분열 때문에’(25%) ‘탈진’(19%) ‘경제적 이유로’(12%) ‘가정 문제’(12%) 등이 복수응답으로 도출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에드 스테처 대표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상호 연관돼 있다”며 “만약 목회자가 탈진 상태에 있다면 분열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지난해 3월 복음주의 계열의 미국 흑인교회 담임목사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1%의 목회자만 교회를 떠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은퇴나 사망이 원인이었다.

스테처 대표는 “두 설문조사 결과는 상관성이 없지만 최근 목회자의 사임 현상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교회는 목회자들이 떠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목회자 84%는 자신이 하루 24시간 내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48%의 목회자들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교회 목사들 역시 목회사역 업무의 과중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임한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같거나 내분을 피하라고 조언했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밝혔다.

이란, 자국 출신 미국인 목사 석방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맞교환이 합의되면서 17일 이란계 미국인 사예드 아베디니(34·사진) 목사 등 3명의 미국인들이 독일 랑스타인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아베디니 목사는 이란



에서 고아를 돕는 등 선교활동을 펼치다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었다.

이란 출신인 그는 2000년 기독교로 개종한 뒤 2008년 미국 전도협회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고 2010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이란에 있는 부모를 만나거나 고아원 사역을 위해 미국과 이란을 왕래했고 2012년 9월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아베디니 목사 구명운동은 미국법정의센터(ACLI)가 주도했다. ‘세이브 사예드(Save Saeed)’라는 캠페인에 110만명이 참여했다. ACLI에 따르면 아베디니 목사가 수감된 것은 이란의 지하교회들을 도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디니 목사의 아내 나흐메 아베디니는 앞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편의 석방은 기도 응답”이라고 밝혔다. 나흐메 사모는 구명운동을 위해 미국 내 기독교방송과 대학, 각종 단체를 방문하며 기도를 호소했고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강연했다. 그녀는 “어느 날 ‘이제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꼈다”며 “그날 이후 더 이상의 구명활동이나 강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석방 소식을 들었다”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란은 그간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아베디니 목사를 석방하지 않았다.

미국 내 무슬림, 2040년에 유대인 인구 추월

미국에 있는 무슬림(이슬람교도) 인구가 2040년에는 유대인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퓨리서치센터 조사를 토대로 미국에 거주하는 330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2050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13일 보도했다.

미국 내 무슬림은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계 무슬림 인구는 미국 거주 유대인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2040년에는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퓨리서치센터는 2010년-2015년 미국에 사는 무슬림 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주로 계속 증가했으며 무슬림의 평균 출생률도 미국의 평균 수치보다 약간 높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유대교를 믿는 인구는 5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기관은 파악했다.

로도 십일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얼마 전 총 당첨금이 2조 원까지 치솟은 미국판 로도 '파워볼' 광풍이 불었다. 당시 미국의 유명 목사들은 “복권은 성경적이지 않다”



며 크리스천에게 복권을 사지 말 것을 권면했다. 그런데 파워볼 1등 당첨자 3명 중 1명이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다. 당첨자 부부는 십일조 헌금을 약속했는데,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나지 만 얻은 돈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결단한 이 크리스천 부부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미국 테네시 주의 먼퍼드에 사는 존 로빈슨과 부인 리사 로빈슨은 파워볼 당첨자 3명 중 유일하게 신분을 드러냈다. 부부는 당첨 후 출연한 한 방송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절저히 교회에 십일조를 내고 있다”며 당첨금 일부를 교회와 지역 어린이 병원에 내놓겠다고 했다.

부부는 파워볼 당첨금 16억 달러의 3분의 1인 5억 28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부부가 섬기는 교회가 어딘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벌써 교회 재정 관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역단체 '처치헬스'는 당첨금을 받게 될 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단체는 “제대로 된 계획이 서기 전까지 당첨금 십일조를 받지 말라”며 “일확천금이 교회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권을 사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점도 꺼림칙하게 남는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파워볼 당첨자가 나오기 전 “크리스천이 파워볼 열풍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당첨자는 많은 이들의 손실로 돈을 딸 수밖에 없다”며 “이 점도 기독교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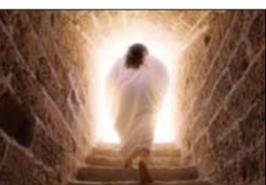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 그러나 돈은 결코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며 복권을 사기보다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돌변락을 맞은 뒤 이중 일부를 떼어 헌금하고, 지역사회에 베풀겠다는 크리스천 부부의 선한 뜻을 비판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며 “당첨된 다음 십일조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예쁘다”는 두둔의 글도 적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은 복권에 당첨됐지만 십일조를 하겠다는 이 부부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각국마다 제각각 '부활절' 1600년 만에 통일될까

부활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예수가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기독교의 가장 의미 있는 기념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부활절 날짜가 공식 지정되기 시작한 이래로 약 1600년 동안 각 종파마다 다른 역법(曆法)을 적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날에 부활절을 기념해왔다.



그러나 부활절 날짜가 공식 지정되기 시작한 이래로 약 1600년 동안 각 종파마다 다른 역법(曆法)을 적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날에 부활절을 기념해왔다.

그런데 머지않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같은 날에 부활절 기념 달걀을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다고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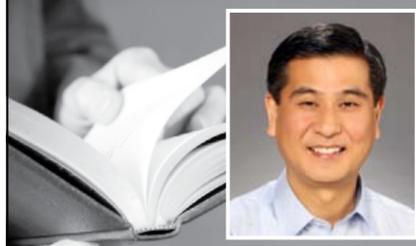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 콥트교의 타와드로스 2세 교황 등 세계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과 통일된 부활절 날짜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웰비 대주교는 “앞으로 5-10년 안에 4월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일요일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부활절 날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깥은 부활절이 학교 학기 일정과 달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국의 정부가 미리부터 이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활절 날짜가 지정된 것은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신앙을 성문화하고자 소집한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다. 당시 선포된 내용에 따르면 부활절은 춘분 지나고 처음 맞는 보름 이후 안식일 다음날이다. 이는 그레고리력(양력)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는 그레고리력 이전의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등 몇몇 기독교 종파들이 다른 달력을 사용한다다가 동방 정교회는 일주일 뒤 부활절을 지내는 전통이 있어 실제 부활절은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돼왔다.

웰비 대주교는 “부활절 날짜를 통일하려는 노력은 10세기 이전부터 있었다”며 “뜻을 모으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 교황청도 부활절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다른 종파 및 각국 정부들 간 합의의 대상이라고 공식 인정했지만 그동안 교계 및 각국 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별 진전은 없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5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리의 형성: 무엇을 믿는가? (5) -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기독교는 분열의 역사를 걸어왔다. 왜 그럴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다 그런 것이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야 할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단 하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전통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교회가 세 워진 곳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사상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되었다.

이대. 유대교의 전통이란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는 그룹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의 생각을 따르는 그룹과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단순히 생각의 차이로 남아 있기에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다. 결국 교회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 문제를 두고 신중하게 논의하였다.

모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한 답을 고집하게 됨으로서, 결국 교회를 크게 혼란시킨 '기독교 논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그 당시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철학이란 안경을 끼고 복음을 이해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갖는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제대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

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한 답을 고집하게 됨으로서, 결국 교회를 크게 혼란시킨 '기독교 논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그 당시 유행하던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철학이란 안경을 끼고 복음을 이해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갖는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제대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

인정하면서도, 과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의 정체성이 어떤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심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어도 정통성을 지닌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교회 내의 상황이 시급하였다는 것을 한다.

■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틴 대제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루살렘공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모였지만 매우 다른 점이 있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교회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소집하였었다. 예루살렘공의회는 교회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기를 바라는 좋은 동기로 소집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오랫동안 세례를 받지 않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받는 등, 콘스탄틴의 교회를 향한 진정한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법령들을 제정하거나 교회의 법률을 인정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였다. 나아가서 이교도들의 전을 몰수하여 교회에 건네주기도 하는 등, 전통적 교회의 모습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콘스탄틴의 정확한 동기를 알 수 없다. 그는 정치인이었기에, 정치적인 계산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단지 단순히 교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지도자들의 태도이다. 그 당시 교회지도자들이 과연 황제 앞에 전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할 만한 여유있었을까? 아니다. 말할 수 없는 필박과 순교의 시기를 지나면서 지켜온 신앙이었다. 황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황제와 거리를 두려했을 것이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콘스탄틴이 참석하였다. 멋진 옷을 입고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한 감독들이 참석한 후에 자기 자리에 앉았다. 박해로 인해서 몸이 불구가 된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미 순교한 자들의 유골도 그곳에 있었다. 이 모임의 성격이 과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교황한 정치인이었다고 가정하여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관하셨다는 것이다.

(10편으로 계속)

예루살렘공의회는 교회내 진리 재발견, 화합도모 가능성 열어준 계기 신플라톤주의 영향 시기에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기독교 논쟁' 종식

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과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예루살렘공의회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지대하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신학적 문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은 물론, 결국 서로를 향해 유발된 적대감이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진전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행정이나 제도에 대한 사소한 이견도 얼마든지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분쟁은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명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리스

도. 이 모임을 통해 이방인 전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뤄진 것이다. 진리에 관하여, 교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가 되려는 성도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교회지도자들이 니케아(Nicea)에 회집하였다. 요즘 정경적으로 모이는 노회나 총회와 같은 성격의 모임이 아니었다. 예루살렘공의회와 유사한 이유로 모인 것이다. 초대교회의 출발과 함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과연 그는 하나님인가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 문제

려 죽은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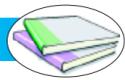
초대교회 교부들이 '정통 기독교론'을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인 체계를 세워온 것이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기독교 논쟁'이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가열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이루신 복음 자체는

콘스탄틴은 동방에 있는 교회감독들이 주를 이뤘지만, 서방의 교회의 감독들도 초청하였다. 원래는 중앙아시아에서 모임 계획이었으나, 교회지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니케아에서 모인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체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의 회심을 의심하거나 교황한 정치인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결국 그가 교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학논쟁을 빌미로 공의회를 소집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교회가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 안정을 찾지 못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결속

책 소개



저자 박상희

"바람의 얼굴"

분단과 꿈, 사랑의 서사시 "바람의 얼굴"이 시인 박상희 권사의 장편소설로 최근 출간됐다. 이 소설은 주인공(지애)의 삶을 통해 한국 근대 역사를 재조명한다. 소설은 권력의 횡포와 무지, 이기심, 탐욕, 부당한 아이러니 속에서 신음하고 저항하는 대중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최선호는 이 소설의 주제와 소재, 오늘의 정국과 문화세

계, 우리 모두의 정서의 능선에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거대한 바톤 '남북통일' 정신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이는 또 소설이란 테두리를 벗어난 절박한 울음이며 멈추지 못할 간절한 외침이라고 표현했다.

"바람의 얼굴"은 장편 소설이지만 필자가 시인임을 드러내듯 여러 편의 시가 사이마다 삽입되어 있어 독자의 정서와 감동에 부채질을 하

고 있다.

또한 최씨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역사와 문화, 인간의 이상과 그



어둠을 광명으로 만드는 정직한 인간들의 무리 속에 살아가며 신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지애가 꾸는 꿈에는 통일의 염원이 아 뜨게 깔려있다.

프롤로그에 실린 환희의 듀엣시 ("탄남", 김동진 작곡 2001년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는 이 소설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치솟아라/무궁화 진달래 붉게 피어라//백두대간 겨레의 줄기찬 걸음 걸음/태백 영봉 한라산 오름마다/술술 부는 봄바람//5천년 역사 쉼넌 줄기에/피는 자유와 평화//울려라 두둥, 둥, 북소리/아, 통일 통일!//삼천리 강산에/두둥실, 떠오르 는 해/두둥실 삼천리 강산에/온 세계에 피어라!

삶의 어느 순간 맞부딪치는 참담함 속에서 갈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의미 있는 인생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 박상희 권사는 7권의 시집과 수필 3권, 소설 장, 중, 단편 영문 소설 등을 출판했으며 올림포에트리 시인 UPLI 계관시인으로 국내외 여러 상을 수상하고 1984년부터 뉴

적박한 현실에서 통일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의 사랑의 서사시

진실성, 사회와 종교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그 위에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지 않은 호소력 깊은 소설"임을 강조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아아, 가버린 세월//취녕록 역센 사랑아/그 한 줄기 핏자국은/삼천리 강산 구름을 압축하고 있다.

필자 박상희 권사는 "소설 속 젊은이들의 꿈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 나아가 참 역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며,

육에서 창작클리닉을 경영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멤피스 연합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중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사
- 2. 목회경력 5년 이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성장 과정, 신앙 여정 및 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내용, 사진포함)
- 3.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 및 목회 방침 계획)
- 4. 설교 CD 또는 DVD 2개
- 5. 목사 안수증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6. 추천서 1통

서류 제출방법

- 1. 제출 마감: 2016년 2월 5일
- 2. 서류 제출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Unite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777 S. Germantown Rd. Memphis TN 38141
- 3. 문의: 청빙위원장(이준욱 장로) 전화: 901-570-0815 Email: edlee112@hotmail.com

www.ukpcmemphis.org

멤피스연합장로교회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학사: 신학, 기독교교육, 석사: 다문화, 영어교육, 상담학, 교회음악, M.Div, 박사: D.Min, 다문화, 교회음악, 크리스찬리더십박사

- 1). 저렴한 학비, 통신, 온라인, 집중강의, 등을 통한 학점 취득
- 2). 미국 초교파적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로부터 목사안수 (남,여)와 선교사 임명 받을 수 있으며 IEA 회원이 될 수 있다.
- 3). 본교는 미국 미주리주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대학교이다.
- 4). 타대학 학점 최대한 인정 편입 가능.

Global Gateway University

www.goggu.us info@goggu.us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 교육국 BPPE CODE 94874 (e)(1)인준학교

총장 이동규 박사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213)386-0300 (213)422-8916 / chongshinuts@gmail.com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청교도 신앙 (하)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청교도의 명칭과 간략한 역사 (상)

들어가는 말

청교도들의 신앙은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가진 이들의 모든 신앙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과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언급 때문에 청교도란 말이 조롱하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존 밀턴의 '오 나이트링게일'과 '리시디다스'에서 문벌이 목사에게 비난하는 장면을 통해, 또한 나다니엘 호오돈은 '주홍글씨'에서 청교도의 외식과 냉정함과 뻔뻔함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사에서도 청교도적 문화정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청교도는 참된 경건에 대한 관심보다 "공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만 고집했던 광신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런 강한 오해와 편견은 끈질긴 힘을 갖고 계속 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교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삶의 내용과 신앙과 신학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2. 청교도란 이름에 대한 의미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라는 말을 재세례파와 같은 지독한 분리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

청교도운동은 16세기 유럽 기반, 영국 개신교 종교개혁 시작이 출발점 에드워드6세 짧은 치리기간 동안 개혁 · 엘리자베스여왕은 절반만 시행

과 세계관에 대해 무지비한 필치로 오해되고 편협된 비평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정보들도 비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필자는 이런 편견과 오해를 살펴보면, 동시에 그들의 풍성한 신앙과 삶, 그리고 신학을 중심하여 영국에서의 청교도들의 기원과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을 전개하면서 청교도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책이나 인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출처보다 이름만 사용한다.

1. 청교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청교도라는 말이 "신앙적 위선자"를 말하거나 "딱딱하고 냉정한 인간"을 비유하여 말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성직으로 억압된 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세익스피어는 "다른 사람들의 흥과 환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을 말할 때 그 대용어로 청교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청교도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제임스(James) 1세가 아들 찰스(Charles)에게 권고할 때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되었는지를 표현한다.

제임스 1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와 국가의 악질 전염병인 청교도를 조심하라. 청교도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서약이나 약속이 소용없는 사람들이다. 난동과 중상 외에 토해 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며, 미친 사람들로서 함께 있으면 아주 악명 높은 도둑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배운망덕과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 맹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했다. 영국혁명이 진행 중일 때, 사람들은 이 청교도라는 말을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애국적인 비국교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했다. 청교도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대 역사가들은 청교도 운동이 17세기 영국과 뉴잉글랜드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한 참된 운동이었다는데 동조한다.

그러나 청교도는 엄밀하게 급진적인 개신교 비국교도들을 의미하는 말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이고 교회적이고 종교적인 차이들을 넘어서 공통적인 특징들에 따라 하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광범위한 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교도는 그 단어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절정하고 활력적인 신앙, 삶과 사역을 통해 보여준 사고방식, 역동적인 신앙문화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청교도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신념에서 나온 운동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다. 청교도운동은 16세기 유럽에서 신앙적,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을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영국에 개신교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을 청교도 운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3. 청교도 운동의 간략한 역사

1) 에드워드 6세(1547-1553) 치세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개신교의 원리들이 급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파급되어 헨리 3세(1509-1547) 때 영국에 도달했다. 영국 왕은 종교개혁에 대한 요구를 로마가톨릭 교회와 분열하는 계기로 삼았고, 그래서 왕은 합법적으로 이혼하여 재혼을 하고, 아들 후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헨리 3세의 병약한 아들 에드워드 6세(1547-1553)의 짧은 치세동안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 대주교를 통해 영국 교회에 도입되었다.

크랜머 대주교는 자신의 작품인 "실교학"(1547), "공동기도서"(1552), "42개조 신앙조항"(1553) 등을 통해 루터와 칼빈의 신학을 영국에 소개했지만 이 개혁은 메리 여왕(1553-1558)의 피의 통치 기간으로 인해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다. 메리 여왕은 라틴어 미사를 다시 시행하고 토마스 크랜머를 비롯해서 270명의 개신교인들을 처형함으로써 영국의 로마 교황에 대한 충성을 노골화했다.

2) 엘리자베스 여왕(1533-1603) 치세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에 보좌에 오르자,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시작된 개혁이 지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린 통일령(1559-1662)으로 인해 카톨릭 사상의 잔재인 성의를 입는 의식이나 그 외 카톨릭 의식들을 영국에서 근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절반만 개혁하는 상태로 머물게 했다. 비록 엘리자베스 여왕이 크랜머의 "공동기도서"와 "42개조 신앙조항"을 엄격히 이행하려는 요구를 했지만 대륙의 개혁과 교회들에서 선포되고 있던 성경적인 설교 양식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1570년 케임브리지 강좌를 통해 개혁의 길은 제네바에서 시행된 더 엄격한 장로교 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러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시 영국 국교회에 대한 신봉을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돌렸다. 1593년에 발효된 '청교도 반대법'을 통해 난동죄와 불충성의 죄명목으로 수 백명의 청교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 한인교회)

쓴 물이 단 물로 바뀐 나옴이

사사시대에 기근을 피해 모암 지방으로 살려 내려갔다가 이방여자 둘을 머느리로 얻은 나옴이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 아들 둘 다 잃고 처량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옴이를 남편도 없는데 따라 나서는 두 머느리들입니다. 자고로 시어머니가 싫어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데 이방인 머느리들에게 얼마나 덕을 세워 그리고도 머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르는지? 삶의 본이 된 나옴이를 본받아 믿음으로 머느리들을 믿음의 진정한 한 가족 되길 소망하며 웃기를 여망합니다.

나옴이와 룿, 시어머니와 머느리의 관계를 온전히 초월해 서로의 유익을 챙겨주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막힌지?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리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니 두 사람을 다 만족스레 은혜 줄 보아심을 인도해주시고 은혜를 통째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땅에서 오절한 남편, 두 아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아쉬움들을 남김없이 머느리를 전심으로 사랑해주는 나옴이의 귀한 성품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풍성한 축복을 들어부어주십니다. 이 세상 환란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머느리를 딸로 여기고 그의 앞날을 위해 온갖 지혜를 베푸니 모두 지존심 상할 기막힌 일들을 시어머니의 지시를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룿의 순종 또한 그 시어머니에 그 머느리 너무도 멋진 신뢰의 환상적인 관계입니다. 그 복스러운 마음에 보아스 같이 낙낙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어주는 이를 남편으로 만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나누니 맘이 참으로 훈훈히 해주는 아름다운 천국 가정의 모습입니다. 룿이 이리 시어머니나옴이를 따르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진솔한 사랑을 룿에게 부었는지요...

하나님은 진실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신가... 기생인 처지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생명 걸고 따라나선 라합이 결혼하게 된 살몬에게서 난 이가 보아스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인 엄마를 두어서인지 전통에 억매이지 않고 시어머니를 애절히 섬기는 룿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통적인 법을 어기지 않으며 그 법을 지키며 룿을 아내로 맞이하는 좋은 여자를 볼 줄 아는 멋진 남자 보아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직계 계보에 들어간 라합, 룿 두 믿음의 거장들의 아름다운 얘기를 살펴보면 오늘날도 많은 불신자들 중에 돌이켜 하나님을 진술하 만나니 이 세상이 얼마나 밝고 행복해질지 생각합니다. 룿과 보아스 사이에 난 아이를 손자로 안고 "네 생명의 회복자"라고 축하받으며 기뻐하는 나옴이의 기쁨을 함께 마음 가득히 나누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려면 운운한 사랑이 절대임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성령의 충만한 아름답게 서로 배려하고 따스한 열매 맺기를 이 땅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또 모든 머느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천국 고부 관계에 임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천국 가정의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소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reanchurch.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월-토) 메일: mc@mcchurch.org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ijhs.com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4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 28209 701 Scalegate R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49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jhs.com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4)542-0288, Fax. (214)54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저희교회가 터키에 선교사로 파송한 David 박 선교사님이 잠시 오셔서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내며 많은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신 후 흥남 부두에서 14000명의 피난민을 싣고 거제도도로 갔던 메르디스 빅토리아와 똑같은 빅토리아가 San Pedro 항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배

가 없어지기 전에 저를 데리고 가서 우리민족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간청에 못 이겨 San Pedro 항에 갔더니 정말 거기 빅토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Lane 빅토리아호란 배인데 메르디스 빅토리아와 쌍둥이였습니다. 그 배도 흥남에서 난민을 7009명을 태우고 왔는데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빅토리아

만한 규모의 배에 14000명을 태운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6.25전쟁이 일어나서 두달 만에 대구, 부산만 남기고 모두 적군의 손에 넘어갔는데,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원산은

이미 중공군의 손에 넘어가고 흥남 부두로 10만명의 유엔군과 국군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10만명의 피난민들이 살기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군함을 타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발을 구르며 배에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10군단장 알몬드는 군인과 물자만 군함에 실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미10군단 민사고문이었다던 현봉학씨는 알몬드를 찾아가 난민을 실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참모장 포니도 도왔습니다. 현봉학씨가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할 수 없이 알몬드 군단장이 난민을 태울 것을 허락하자 화물선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 라루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1명이라도 더 태우라"는 명령

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60명 승조원을 태우고는 빅토리아호에 14,000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3일 밤낮을 추운겨울바다를 달려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에 배안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나 도착할 때는 14,00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계 역사는 "한국전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주역은 바로 현봉학씨였습니다. 현봉학씨의 설득으로 알몬드 군단장이 "난민도 군함에 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이 소식이 바로 죽음 앞에 떨고 있던 난민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흥남부두의 난민들에게는 군함에 오르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결국 50년, 80년 안에 끝나는 생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선이었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생명의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선교의 항포함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되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런 군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주세이연 한국세이연과 잠정적 결별

'두 날개' 옹호 위한 세이연 잠정폐쇄에 불복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 진용식 목사, 이하 세이연)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출범 5년째를 맞은 세이연은 잠정폐쇄를 결정하고 오는 2월 15일 개최예정인 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를 위해 세이연 미주(미주세이연) 측 임원들이 15일 오전 11시 로텍스 호텔 내 여수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세이연이 돌로 갈라지게 됐음을 발표했다.

이날 모인 미주세이연 관계자들은 제5차 세이연 총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세이연을 잠정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배경에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두 날개'가 연관돼 있다면서, 그 예로 현재 교계에서 '두 날개'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비성경적 요소로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므로 상당수의 상임위원들이 세이연 대표회장의 '두 날개' 세미나 강사직 수락은 적절치 않은 행동임을 지적하면서 세이연 균열은 예견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부 상임위원들의 반대에도 진목사는 강사로 가는 것을 번복하지 않았고, 논란이 계속되는 '두 날개'에 대해 연구해서 가부를 판단해보려는 시도가 이번 총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자 대표회장은 상임위원회를 소집, 충분한 배경설명과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세이연 잠정폐쇄로 총회를 무산시켰으며 총회 개최 등 향후 일정은 현 대표회장에게 전권을 일임한다는 동의안 처리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다고 미주 세이연 측은 설명했다.

미주세이연 측은 진 목사의 행보에 대해 그가 소속돼있는 예정합동총회와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두 날개에 대해 비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언급했다. 현재 예정합동총회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박무용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황금교회가 두 날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의 이단성이 짙은 두 날개 옹호로 인한 연합회 폐쇄에 반발하여 미주세이연 관계자들이 한국측 세이연과 잠정적 결별을 발표했다

이단전문가로 정평이 난 진용식 목사 역시 교단정책을 여기면서 두 날개를 이단으로 다루기 어려웠을 것이라 지적했다. 세이연 미주 회장 김순관 목사는 "진용식 목사가 '두 날개'라는 특정 단체에 대해 옹호 내지는 비호하려는 의도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나 금권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고 건전하게 이단연구 및 대책을 하기로 한 세이연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국 일부 회원들과의 단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세이연 미주사무국장 한선희 목사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공연히 미주 쪽을 겨냥, 모욕적인 비방을 하고 세이연을 폄하하거나 한국내 회원들끼리의 불화로 해외 회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보게 해 이제 더 이상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고, 세이연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에게 '세이연' 이름을 사용케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세이연 미주재무국장 이태경 장로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조율해가며 세이연이 분리되는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총회를 연기하고 세이연을 잠정폐쇄한다는, 온라인 기명투표 9:7로 잠정폐쇄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단절하려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이연을 바로 잡고 오히려 새로운 전기로 나가는 발판을 삼아 이단대처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내부적 균열을 상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월 15일 한국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번 총회에서는 신유주, 장재형, 최일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그리고 두 날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현의안이 올라갈 예정이었다.

한편 세이연 미주측은 오는 2월 9-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방향설정 및 운영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세이연은 2011년 1월 13일 IHOP과 관련 뉴욕세미나를 위해 미주에 있는 4개의 이단연구단체가 뉴욕에서 모임을 갖고, 더욱 효과적인 이단대책 사역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단 연구기관들이 하나로 연대해 날로 진화하고 증가하는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미연방과 캘리포니아주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다.

현재 세이연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브라질, 일본, 한국 등에서 87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각 나라별로 상임위원을 두어 임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새 회장에 홍창우 목사, 부회장 이종만 목사

NC한인교협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성섭 목사)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가 지난 4일 그린스보로 성은장로교회(담임 홍창우 목사)에

서 개최됐다. 1부 예배는 송성섭 목사 사회로 임대문 목사(총무)의 기도 후 홍창우 목사가 설교했으며 나성균 목사

의 축도로 마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홍창우 목사 △부회장 이종만 목사 △총무 박형우 목사 △서기 박덕길 목사 △회계 송호철 목사. (기사제공: NC교협)

필라영생교회 2대 담임 백운영 목사

10일 공동의회서 90% 지지 얻어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는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갖고 2대 담임목사로 백운영 목사 청빙을 확정했다. 1, 2, 3부 주일 예배 후 각각 본당에서 곧바로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후보인 백운영 목사는 전체 990표 중 찬성 897표, 반대 85표로 90%의 높은 지지를 얻어 영생장로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백운영 목사는 영생장로교회 초기부터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

건축에도 크게 기여한 백승노 원로 장로의 자제로, 신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모교인 영생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영생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6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기사제공: 영생장로교회)



백운영 목사

이용걸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함춘호 교수 콘서트가 'Legend 100 Songs Los Angeles'라는 주제로 셰퍼드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Legend 100 Songs Los Angeles'

서울신대 함춘호 교수 콘서트, 쉐퍼드대학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함춘호 교수 콘서트가 'Legend 100

Songs Los Angeles'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7시 쉐퍼드대학교 강당

에서 열렸다. 함춘호 교수는 "관객 분들이 공연 내내 함께 호흡하는 느낌을 주셔서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우리문화를 알리자는 이야기 있었다. 그것을 미국에도 알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됐다"며,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함춘호 교수가 서울신대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대중음악 중 명곡 100곡 중에서 엄선된 20곡을 공연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독극화의 '행진'으로 첫 곡을 선보인 함춘호 교수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를 비롯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등을 불렀으며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관객들과 함께 불렀다. 또한 이장희 씨가 스페셜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속 깊은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소그룹이 좋다!

〈1면에서 계속〉 둘째, 이 일은 외부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소그룹의 리더 자신이, 소그룹의 멤버 하나하나가 서로를 더 깊이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외부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기관이나 잘 듣는 관리자 한 명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셋째, '모범, 정보, 시련'이라는 전략에 따라 운용한다. 깊이 있는 사

람의 모습을 우선 보이도록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도록 시험하는 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본다.

넷째, 이를 위해 때론 친절함과 착한 모습을 버려야 한다. 서로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때론 알은 관계의 사회에서 '무례'로 평가하는 영역까지 침범해



OC지도자 초청 신년축하만찬회가 지난 7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코요테컨트리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다음세대 하나님의 인재로 양성" 밝혀

GVCS, OC기독교계 지도자초청 신년축하만찬회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이하 GVCS) 설립 이사장 남진석 목사 초청 OC기독교계 지도자 초청 신년축하만찬회가 지난 7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코요테컨트리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만찬회는 OC기독교평신도 연합회 윤우경 회장 사회로 시작됐으며 민승기 목사(OC교협 회장) 설교, 이길소 선교사 기도, 광재필 목사(OC목사회 회장) 축도, 박승환 목사(OC원로목사회 회장)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남 이사장은 간증시간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GVCS의 미국 진출은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를 지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들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이며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GVCS는 2003년 강원도 홍천군의 한 수련원에서 시작돼 2004년 충북 음성 캠퍼스와 2011년 경북 문경 캠퍼스, 그리고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를 개교해, 현재 1,000여 명 이상의 재학생이 확고한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공부하고 있다.

졸업생 1,000여 명의 동문들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명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기사제공: OC평신도연합회)

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6년을 맞아 학생모집을 한다. 학위과정은 ESL 프로그램과 △학사(BA):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육학 △석사(MA): 상담학, 교육학, 음악, 영어교육(TESOL), 신학(M. Div) △박사(D. Min): 목회학(상담, 기독교교육, 선교, 목회학), 음악, 리더십. 학위취득 방법은 온캠퍼스(SEVIS I-20 발행)와 온라인(세계 어느 곳이나), 블랜드 강(소집강의와 온라인 교육 병행)이 있다. 미주리 주 웬츠빌 본교와 워싱턴DC 캠퍼스가 있다.

▲문의: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사역자 청빙

뉴저지 밀알선교단에서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장애인 선교 봉사 에 관심이 있는 전도사 혹은 목사 풀타임 사역자(꼭 전도사, 목사가 아니어도 가능)로 행정업무 능력이 요구(Office 작업요망)되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장애학생들의 프로그램을 기획, 인도해야 한다. 근무일은 5일(화, 수/목, 금, 토, 주일)이며 근무시간은 요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추천서(1통, 목사님 or 친구)를 이메일(miju9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1월 31일.

▲문의: (201)530-0355

부교역자 청빙

뉴욕강성장로교회(담임 이종명 목사)가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iv.학위를 받고 목회소명의 확신과 비전이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 찬양과 2세 교육 사역에 은사가 있는 자를 우선한다. 이력서(사진 첨부)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선기던 교회 추천서(우선 고려), 설교 1편(CD, DVD, mp3, 또는 설교원고 30분 이내 분량). 접수마감은 2016년 1월말. 서류제출은

이메일bestacademyp22@gmail.com

로 하면 된다.

▲문의: (917)559-2645

교회와 찬양팀을 위한 음향 세미나

교회와 찬양팀을 위한 음향 세미나가 토요일인 2월 13일과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강사는 박태중, 장소는 Dale Pro Audio(148-4 95th Ave, Jamaica, 웹사이트 soundparkny.com). Bose, JBL, Meyer, Yamaha 등 유명 브랜드 오디오를 접해볼 수 있다.

▲문의: (443)762-4020

“예배와 워십” ... 정의부터 성례전까지

미주여성목회자협회 예배세미나, 강사 임장기 교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장경혜 목사)가 주최한 임장기 교수 초청 예배세미나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에 이어 설교의 기능, 원리, 위치, 준비, 신앙고백 등에 대한 것과 성례전, 결혼식, 장례식 등에 대한 것까지 총망라해 강의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예배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 임장기 교수와 함께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2016년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윌리엄스 칼리지 교정에서 기념촬영 했다.

“선교와 부흥의 발상지를 찾아서”

뉴욕목사회 2016신년기도회, 윌리엄스칼리지 무디 생가 방문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선교와 부흥의 발상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무디 생가와 윌리엄스 칼리지 등을 방문하고 2016년 신년

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뉴욕일원에 불어 닥친 강추위에도 대형버스 2대로 나눠 탑승한 90여명의 목회자들은 오가

는 차 안에서 강의와 더불어 친교의

(유원정 기자)



한기부 뉴욕지부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13일 뉴욕목양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통일은 하나님의 ‘기적통일’ 로만 가능

한기부 뉴욕지부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회”

한국기독교부흥협회(한기부) 뉴욕지부가 주최한 “조국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13일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신임 뉴욕지부 회장으로 선임된 송병기 목사가 매월 기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갖는 기도

회다. 이번 기도회 역시 1부와 2부로 나눠 1부 설교는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가 2부는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담임)가 했다.

기도회는 송병기 목사 사회로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의 찬양과 경배 후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가 대표 기도했으며 설교 후 1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2부는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수 목사는 “세월을 아까라”(엡5:14-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의 통일은 적화통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통일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소련연방과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되고 연방들이 독립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기도회가 순수복음만 전하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용기와 희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기적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목사는 “주께서 쓰시는 사람”(눅5: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①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②시간, 물질, 재능을 드리는 사람 ③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④협력할 줄 아는 사람 ⑤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 ⑥부르심에 즉시 따르는 헌신하는 사람들 사용하신다”며, “이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세계선교에 쓰임 받자”고 말했다.

첫 설교 후에 “조국통일을 위해”, 두 번째 설교 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 각각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기부 2월 통일기도회는 10일(수)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우회 임원들. 왼쪽부터 박문근 고문, 김진 회장, 배성희 사모, 김택용 총무.

뉴욕목우회 창립예배...2001년 시작

회장 김진 목사, 현재 54교회 후원

뉴욕목우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뉴욕대한국교회(담임 김진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뉴욕목우회는 김진 목사부부(배성희 사모)가 2001년부터 미주내 한인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후원해오다가 이번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 현재 54교회를 매월 후원하고 있다.

예배는 박문근 목사 인도로 기도 김연규 목사, 성경봉독 배성희 사모, 특송 김형택 목사, 말씀 박현영 목사, 축도 김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현영 목사는 “어떻게 살아갈까”(마22:37-4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목회현장에 예수사랑이 부족하고 나눔 실천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목우회 창립으로 인해 뉴욕의 목회자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영적 회복이 일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만남의 열정을 갖고 웰에이징

(well aging)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택용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이종명 뉴욕교회 회장과 김영환 뉴욕목사회 회장이 축사했다. 이종명 목사는 “성경말씀대로 돕고 도움 받는 목우회 창립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김영환 목사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돕는 목우회 출범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문 목사(지구촌교회)가 미자립교회 사례 제1차보고를 했다.

오전 시간에는 회계사이기도 한 김진 목사가 소셜시큐리티 관리에 대해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목우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진 목사 △부회장 배성희 사모 △고문 박문근 목사 △총무 김택용 목사.

한편 이날 참석회원들에게는 2016년 1월분 목우회 보조금이 지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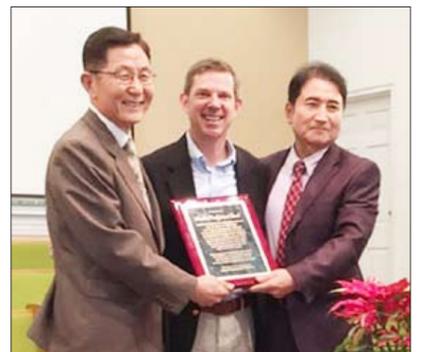
(유원정 기자)

샬롯장로교회 사용 호프교회 이전, 감사패 전달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의 체육관을 8년간 사용해왔던 호프교회(담임 MARK UPTON 목사)가 지난 10일을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돼 샬롯장로교회에 선물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호프교회는 샬롯장로교회와 동일한 PCA 교단으로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특히 젊은 층 전도와 주일학교 교육에 많은 열매가 있어왔다.

10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업튼 목사는 무료로 체육관을 임대해준 교회에 감사함을 표했다. 호프교회는 그동안 150-200% 교인 성장을 이뤄냈다.



샬롯장로교회에게 호프교회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 나성균 목사, 가운데 마크 업튼 목사.

샬롯장로교회 체육관은 그동안 네 교회가 예배 처소로 사용해왔는데 이번 호프교회가 이전함으로써 월남 산속교회인 몽트나르교회와 에리트리아교회가 오전 일찍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7면에서 계속)

콘스탄틴의 동기가 어떠하였던지, 교회를 심하게 분열시키며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기독교 논쟁'이 니케아 회의 이후에 종식되었다.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야고보서 4:13-17; 이사야 29:15-16; 예레

미야 23:23-24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신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가 지닌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연하거나 결코 옳지 못한 동기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넣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인

생과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 교리적 대립을 포함하여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다.

covenantcho@yahoo.com (계속)

“신뢰회복...기도하며 봉사하겠다”

제41대 남가주장로협회장 이취임식... 이창건 신임회장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1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17일 오후 4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었다.

신임회장 이창건 장로는 취임사에서 “허물로 얼룩진 부족한 죄인을 회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회에서 공천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41대 남가주장로협회는 인화단결을 도모해 십자가 밑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나아가고자 한

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봉사가 무엇인가를 헤아려가면서 정체성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성장을 도우며 시대적인 사명을 각자가 감당해 분담된 조국의 통일을 이끄는 그릇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 전임회장의 사퇴로 시작된 취임식은 심래문 장로가 취임회장 소개, 최형호 직전회장이 취임패 증정, 김영 전임회장이 장로기 전달,

박일영 목사가 취임축하 기도로 이어졌다.

이어 심임회장 이창건 장로가 취임사를, 직전회장 최형호 장로가 이임사를 했으며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구 장로가 신임회장에게 축하패와 최형호, 김영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이창건 회장이 한 장로연합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한장총 전임회장 이정균 장

로가 남가주장로협 전임회장 조선환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그리고 조선환 장로가 환영사를, 이철구 장로와 정요한 목사가 축사를, 그리고 이정균 장로가 축사를 했으며 분회 고문 이화룡 장로가 폐회 기도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김찬근 장로의 사회와 KUPC 찬양선교단의 찬양인도로 시작했으며 전임회장 최성근 장로가 기도장,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증거회장)가 ‘비전이 이끄는 장로회’(빌 2: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협의회 제41대 회장 이취임식을 마친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서울신대 찬양음악예배가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새생명비전교회 서울신학대 찬양음악예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연주단(교회음악과 실용음악과)의 찬양음악예배를 17일 오후 2시15분에 가졌다.

함춘호 교수(본교 실용음악과장)의 사회로 열린 찬양음악예배는 본교 교회음악과 합창단과 실용음악과 보컬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더비상’과 밴드가 준비한 찬양을 선보였다.

이어 강준민 목사는 ‘믿는 자가 받는 지극히 큰 상급’(창15: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본교 학생들의 공연과 더불어 함춘호 교수의 기타연주와 송영주 교수의 연주도 함께 열렸으며, ‘할렐루야’를 함께 부른 뒤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임원들(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원재 회장)

회장 김원재, 수석부회장 김명옥 남가주교회음악협 2016-18년도 새임원 발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가 2016-18년도 신임임원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뉴욕에 위치한 더블트리호텔에서 신년모임을 가진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신임임원들은 지난 2년간 분 협회가 해왔던 것처럼 지속성을 갖고 협회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김원재 회장은 “사병으로 전 회장과 여러 임원들이 잘 섬기셨던 것처럼 2016-18년에도 남가주에 있는 교회음악발전과 교회 음악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히 이민자의 어린이들이 찬양을 바로 알며 접할 수 있도록 찬양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남가주 성가대 합창제, 어린이 찬양대회, 창작성가의 밤, 성가곡 리딩세션, 지휘자 성가대

CCM 세미나 및 오페라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남가주 메시아 심어롱’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한해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시길 기도드리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6-18년도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임원 명단이다.

△회장: 김원재 △수석부회장: 김명옥 △부회장: 전현미 △총무: Randy Kim △서기: 엄인용 △회계: 임보희 △기획분과: 김형직 △성악분과: 채형석 △어린이분과: 임보희 △작곡분과: 황광선 △협정분과: 윤태준

▲문의: (714)336-4731 김원재 회장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선택과 책임...감정 넘어 신중해야 미주평안교회, 청년 위한 결혼예비학교 개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미주평안교회 청년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 두 번째 날 시간을 17일 오후 1시에 가졌다. 이날 청년부 예배에서 박병열 목사(본교회 청년담당)는 ‘마마보이 & 홀로서기’(창 25:19-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미국에서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말한다. 이는 자녀들의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자식에 대하여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부모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자식에 대한 집착은 마마보이&마마걸 같은 의존적인 젊은이들을 양산해냈다. 이는 대졸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도 여전히 부모에 기대어 사는 ‘갬겨루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결혼제도를 명령하시면서 선행되는 조건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었

다. 떠남은 단절이 아닌 부모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의존적인 삶이 아닌 아내와 연합된 홀로서기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독립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이는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고 결혼하는 의미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그만한 책임과 함께 홀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결혼은 감정을 넘어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예배 후에 계속 진행된 결혼예비학교에서는 해나킴 웨딩플래너가 ‘결혼 그 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결혼예비학교는 24일 임안나 선교사(YWAM)가 강사로 참여하게 되며, 31일에는 ‘선배들로부터 듣는 결혼, 그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909)643-4377 박병열 목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개혁장로회대학신대원 성경적 상담 특강

개혁장로회대학신대원(총장 황은영 목사)에서 황규명 박사를 초청, 2월 9-11일(화-목)까지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 특강을 실시한다. 황규명 박사는 총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이며 서울 사랑의교회 상담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목사, 전도사 교육담당 지도자, 신학생 대상이며 수료한 자에게는 목회자연장교육의 일환으로 수료증을 발급한다. 등록비 1인당 200달러(부부일 경우 한 사람은 100달러)

▲문의: (310)986-9797 교무처장 안병권 목사

제 9회 올네이션스연합기도 컨퍼런스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연합회(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영명 목사) 주최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제 9회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All Nations Intercessory Prayer Conference)가 1월 31일(주)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 데일리시티에 위치한 San Francisco First Burmes church(담임 Latt Yishey 목사)에서 열린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역대하7:14)라는 주제로 북가주에 위치한 미국 주류를 비롯해 30여 민족교회가 연합해 갖게 되는 이번 연합기도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선언문(12기도문) 채택과 메시지에 이어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러 민족 연합 합심기도가 있게 된다.

▲문의: (925)639-9527

GMMA Vision Celebration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선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6월 24일, 25일 양일간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에서 GMMA 2016 제 6차 한미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가마선교회는 1월 23일(토) 오후 4시-6시까지 베델교회에서 가마선교회 비전 나눔과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몸과 마음,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14)444-3032

‘2016년 첫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누는 ‘2016년 첫번째 삼삼오오 찬양예배’가 31일(주) 오후 3시 30분 사우스베이 지역의 새창조교회(담임 김관중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934-0058 이용옥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입당감사예배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는 설립 25주년 및 교육관 입당 감사예배를 24일(주) 오후 5시에 갖는다. 교회주소는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문의: (310)370-5500

인랜드 올리브장로교회 임직식

인랜드 올리브장로교회(담임 강신형 목사)는 설립 2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24일(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문의: (909)553-4234, (951)312-9784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청년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에서 박병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lgco Tel: (323)913-4489, Fax: (323)913-448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영성)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mank.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un.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밀려들기: 오전 5:30 토요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49)854-4010 / (F) (562)691-0698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토요예배: 오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철은이예배: 오후 11:20 영아권(장소: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i.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dgk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선교의 목숨줄을 잇는 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245-4090 (전화 또는 방문), Tel: (213)210-888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www.youngmank.org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토-토): 오전 6:00 www.mpca.org Tel: (213)381-2202 / Fax: (213)381-2535 170 Bin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성) 성인영아예배: 오후 11:00 대학영아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i.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1-462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오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목 안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2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아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가지도원: 3655 2424번지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org Tel: (714)646-929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안 예배: 오후 7:30 주일 학교: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o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올 부활절 60여개 교단 '대연합 예배' 드린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결정... 3월 27일 실내 장소서 개최

'2016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60여개 진보와 보수 교단이 참여하는 진정한 연합예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교단장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신년하례예배 및 회의'를 갖고 오는 3월 27일 오후 3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는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단장회의 상임 회장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7개 교단장을 포함한 15

개 교단 총회장이 참석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각 교단이 속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연합기관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장들은 이날 연합예배 대표 대회장에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을 추대했다. 실질적으로 예배를 준비할 준비위원장은 예장합동 김창수 총무를 선임했다. 기획 및 예배, 진행, 홍보 등 8개 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교단장들은 예배 장소로 서울 대형 실내체육관이나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을 타진기로 했다. 꽃샘추위 등을 우려해 실외는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교단장회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예배로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설교자와 개최 장소 등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그간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의 상징이었다. 해방직후인 1947년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작된 부활절연합예배는 그간 교계 내부분열로 몇 차례 따로 열리기도 했다. 특히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기총과 NCCK는 2006년부터 부활절연합예배를 공동으로 열어왔지

만 2012년 한기총이 내용을 겪으면서 연합예배의 맥이 끊겼다. 하지만 지난해 교단장회의가 복원돼 부활절연합예배 실무준비를 맡았고 올해 역시 교단장회의가 교단 간 연합예배를 주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일치로 나아가고 있다.

이날 각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따른 남북경색국면 해소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경제안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크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회개하고 통회·자복한다"며 "한국교회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소의 이웃을 정성스레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해 달라"고 간구했다.

교계 이슈, 4월 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중립학교 종교 교육권·동성애 문제·이슬람 침투...

한국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공공정책 취합에 나섰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총재 김삼환 목사)는 18일 서울 중로구 연동교회 카페에서 '제20대 총선 정책제안을 위한 정책위원 모임'을 갖고 다음 달 말까지 교계 의견을 모아 3월에 '교계 지도자 초청 기독교공공정책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기공협은 "이렇게 모아진 의견을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하고 각 정당과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정리해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 기독교연합회와 성서화운동본부 등이 지역 후보에 질의함으로써 기독교 유권자들이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움 계획이다. 총선 후에는 당선자 기도회도 열어 기독교공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용태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중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총재는 "중립학교의 종교 교육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다"면서 "과거 중학교 무시험제와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 하위법령에 의해 중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이 점차 박탈돼 현재는 아예 특정 종교 과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제안도 잇따랐다. 전 총재는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性)적 지향'(이성애·동성애·양성애) 문구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자의 인권이 아닌 동성애 행위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동성결혼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세력 침투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이슬람은 정·교 분리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개인의 종교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일처제도 무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습을 부정하고 테러리즘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이슬람권에 대한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다.

장영백 건국대 교수는 "교회가 침묵하면 나라는 침몰한다"며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과 마약, 도

박, 인터넷 등에 중독돼 있다"며 "각 시·군에 종교기관과 연대한 중독예방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기독교공공정책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기공협은 2012년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 기독교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한국교회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며 "특히 대통령직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토요일 시행' '근대기독교문화유산 보존'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교계의 주요 현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성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 교계 단체와 주요 교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 명예총장 신복운 목사 별세



합동신학대학원대 학교 명예총장 이자 남포교회 원로인 신복운 목사(사

14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1926년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태어난 신목사는 48년 총신대(구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원(Th.M.)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학 이후엔 교수 사역에 매진해 56년 광주신학교를 시작으로 관동대, 칼빈신학교, 총신대신대원, 합동신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과 명예총장을 역임했다. 내수동교회 담임목사, 남포교회 원로목사를 지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7호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동공원이자. 발인예배는 16일 오전 9시.

감리교, 미자립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총회 임시입법의회 개최... '성별·연령별 쿼터제' 도입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대표(총대)에 여성과 50대 미만을 각각 15%씩 선출하는 '성별·연령별 쿼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감은 14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감은 교역자 특별조사 대상을 설명하면서 '불성실한 교역자'의 예시를 열거한 의회법 제77조 2항을 수정했다. 2항에는 '불성실한 교역자'로 '이단 사상에 빠진 이'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등과 함께 '이중

직업을 가진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입법의회 회원들은 이 조항을 '이중 직업을 가진 사람,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이중직은 허용하지만 이 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기감은 이중직업을 가지는 목회자는 소속 연회에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미리 알려 연회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감리교단이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키로 한 것은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목회자가 많기 때문이다. 목회사학연구소가 2014년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목회자는 전체의 66.7%에 달했다.

국민일보가 새한국기독교인론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공동으로 목회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55%는 '이중 직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기감은 총대 선출에 있어 여성과 50대 이하를 배려하는 성별·연령별 쿼터제도 만들었다. 쿼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감리교단 총대 구성이 50대 이상 남성에게 치중돼 있어서다.

특히 여성 총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적이 많았다. 감리교여성연대에 따르면 2004년 여성 총대

비율은 8.8%였으나 지난해엔 3.3% 수준까지 추락했다. 해당 안건을 둘러싼 찬반토론에서 한 여성 회원은 "감리교 공동체에서 여성은 60%가 넘는데도 여성은 교단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키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은 "총대들 나이가 너무 많은 편"이라며 "연령별 쿼터제는 젊은층에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입법의회는 지난해 열린 입법의회 '연장회의' 성격이었다. 기감은 지난해 10월 28-30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입법의회를 개최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개정안을 전부 다루지 못했다. 당시 입법의회 회원들은 추후에 임시입법의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 일정은 감독회장에게 일임했다.

제 14차 서울총회 '회심과 변혁' 주제로 세계선교학회 베헤강가스 대표 방한

전 세계 선교학자들의 모임인 세계선교학회(IAM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ission Studies)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 8월 11-17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장신대)에서 열리는 '제14차 서울 총회'를 알리기 위해서다.

IAMS 회장 미카 베헤강가스(스웨덴 룬트대·사진) 박사는 12일 장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총회는 문화·언어·교파적으로 여러 배경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대회"라며 "논문을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AMS는 1972년 네덜란드에서 창립됐다. 4년마다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세계 선교학 분야에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AMS는 현재 50개 기관과 400명의 개인회원이 소속돼 있다. 이번 서울 총회는 '회심과 변혁'을 주제로 200명의 외국 학자와 50명의 국내 학

자들이 참여한다. 총회에서는 선교역사와 사회인류학, 성경신학의 관점으로 조명한 주제 발표와 12개 연구그룹별 논문이 발표된다. 총회에서 발표될 논문은 200개에 달한다.

핀란드 출신이면서 스웨덴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베헤강가스 박사는 탄자니아에서 10년간 목회 활동을 했다. 그는 동아프리카 현지인들의 회심 경험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했다. 그는 "회심으로 인한 변화는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와 환경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며 "회심은 일회적 경험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

다. 한국 선교학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지만 분열돼 있는 양상을 보인다"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이 서로 '세검줄'(전4:12)을 이루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노윤식)와 한국선교신학회(권오훈), 한국선교학포럼(최형근) 등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문상철)이 실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준비위는 서울 총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전체를 번역, 출간할 계획이다.

신천지대책전국聯, '신천지 그림' 10개 추가 공개 핵심교리 주입시킬 때 미리 알아두면 접근 예방 가능

신천지대책전국연합회(신대연)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그림 10개를 공개했다. 이단상담 전문가들은 국민일보가 공개한 85개 그림과 이번에 발표된 10개 그림만 사전에 숙지해도 신천지의 접근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대연이 18일 공개한 10개 그림은 신천지가 정통교회 성도를 미혹한 뒤 신천지 핵심교리를 주입시킬 때 각의실 침판에 그려며 가르치는 그림들이다. 주로 성도들을 미혹한 뒤 2~4개월 내에 진행되는 복음방·초등교육 때 나오는 것들이다. 정통교회의 구원관을 같이였고 왜곡된 종말론을 주입시키는데 활용되는 핵심 그림이다.

'유대교단과 그리스도교단' '도의 초보' '신약시대 완전한 데(곳)' 그

림은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인 이분법에 기초한다. "신천지만이 완전한 곳이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주장을 펼칠 때 써먹는다. 신천지 교재에 따르면 "정통교단은 유대교단이며 정통교회가 지각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매도한다.

"진리와 비진리"도 이분법적 리에 근거한다. 신천지는 "정통교회는 말씀 밖 비진리에 있으며 무지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특유의 비유폭이를 통해 육적인 빛과 영적인 빛을 끌어낸다.

"피와 시기를 아는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예수님 승천 후 2000년 동안 신약의 예언이 봉합돼 있었고, 약속의 목자를 통해 펼쳐진 말씀을 깨달을 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훗날 신천지는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한다.

신현욱 신대연 대표는 "신천지가 반드시 가르치는 95개 그림은 정통교회에선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라면서 "따라서 그림이 약간 변형됐다 하더라도 신천지가 맞다"고 설명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국민일보에서 제작한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팸플릿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다가 빠져 나왔다"면서 "팸플릿에 신천지가 반드시 가르치는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 전국교회가 활용하면 신천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직장인선교회 2016년 신년하례예배에서 조일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로 마쳤다. 한편 2부 순서는 친교 및 식사의 시간을 가졌다.

말했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돼 있다.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 신약은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 북한말로 옮겼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 및 예수님의 사역 지도 등도 포함시켰다.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이 성경을 소지해도 들리지 않도록 아무런 장식이나 제목을 달지 않았다 (cornerstone.or.kr).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신년하례예배 '모든 직장에 직장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서병조 집사)는 고문 및 지도위원 초청 2016년 신년하례예배를 지난 9일 오전 11시 종로교회(담임 최이우 목사)에서 '모든 직장에 직장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제로 열었다.

글로리 찬양단의 찬양인도와 서병조 집사의 인도로 시작된 신년하례예배는 권인수 권사(직능네트워크 본부장)가 기도를, 손호숙 권사(청년여성본부장)가 성경 봉독했으며 조일래 목사(수정성결교회/한국

교회연합 대표회장)가 '하나님의 소원'(행1:4-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영준 장로(전 울산산교연합회장)이 헌금 기도했으며 이지현 자매(홍보대사)가 헌금 특송을 했다. 그리고 이상구 장로(이사장)가 8대 이사장 정세량 장로에게, 박홍일 장로(명예이사장)가 제32-34대 대표회장 주대준 장로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으며 이상구 장로가 환영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최이우 목사의 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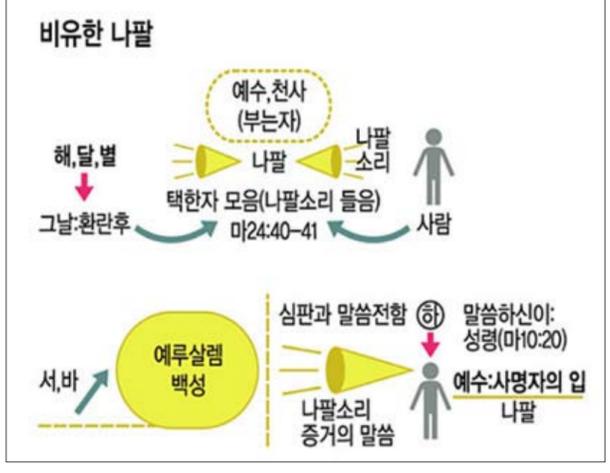
북한성도 위한 '북한어 성경' 나왔다 모퉁이돌선교회 출간...1차로 3000권 무료 배포

북한 구호 및 선교단체인 모퉁이돌선교회(대표 이사 목사)는 '북한어 성경'(신·구약 66권 합본·사진)을 출간해 북한과 중국교회 등에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성경은 북한주민이나 탈북민들이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말로 제작된 것이다.

이사 목사는 "신학자와 목회자,

탈북민 등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며 "특히 한글성경을 읽는 탈북민 등 북한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목사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 이 성경을 북한선교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교회나 선교단체에 1차로 3000권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2만명 중국선교사 파송 (3)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5. 순교당한 서양선교사들의 기념의 시간

저녁 집회 때 한 감정 깊은 시간은 1900-1901년에 일어났던 중국의화단(Boxers Revolution)의 외국선교사 살인 사건이다. 중국의화단은 중국 청나라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서양 식민주의자들을 중국으로부터 몰아내는 사건이었다. 2년에 걸친 의화단의 살해사건은 특별히 시골에서 사역하는 서양선교사 236명을 살해하였는데 그중에 개신교 선교사가 189명이 포함되었다. 중국내지선교단(China Inland Mission-현OMF)은

선교중국2030 선교대회장은 앞으로 15년을 5년씩 나누어 단기선교사와 장기선교사의 수를 영상으로 제안하였다. △2016년-2020년: 3,000명 단기선교사와 1,000명 장기선교사 파송 △2021년-2025년: 30,000명 단기선교사와 5,000명 장기선교사 파송 △2016년-2030년: 300,000명 단기선교사와 14,000명 장기선교사 파송 이 많은 중국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선교전략이 필요하다며 "10개 선교전략"을 제시하였다.

- 1. 중국의 도시와 교회별로 크고 작은

- 9. 선교중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선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해외 화교교회와 서양의 정통적 선교단체로 부터 선교전략을 배워야한다.
- 10. 중국의 상인선교를 추진시켜 상인을 통한 선교운동을 추진시켜야 한다.

IV. 약 200명 선교 헌신자

선교중국2030선교대회의 클라이막스는 대회 끝날 저녁 집회 때 중국 기독교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 먼저 참석자들 중에 선교사들

2030년까지 30만 단기선교사, 1만4천 장기선교사 파송 계획 10개 선교전략 제시...끝날 저녁집회 때 200명 선교사로 헌신

58명의 선교사와 21명의 선교사 자녀가 학살을 당했다. 그 외 중국기독교인이 학살당한 수는 50,000명이 넘었다.

선교중국2030에 참석자에게 순교당한 서양선교사의 사진과 그의 배경이 적인 카드(2x6)를 나누어 주었다. 필자가 받은 카드에는 미국의 선교사 백 목사(Rev. White 35세)와 영국부인, 백사모(46세)의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1990년 8월30일에 상서성의 밍허 도시에서 순교를 당했다. 사진 옆에 중국어로 이렇게 써 있었다. "나는 당신들을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같이 계시길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서양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심정을 표시하는 시간이었다. 오늘의 중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이 서양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생명을 바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III. 2030년까지의 선교전략

이 선교대회의 대회장이며 상해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선교대회 끝날 저녁에 강단에 중국어로 쓰여진 "감동," "행동," "연동"을 내걸고 앞으로 중국교회의 15년 선교전략을 상세히 표시하였다. 선교중국2030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과 감동을 얻었다. 다음 단계는 감동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또한 선교는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선교 연합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선교집회를 마련하기를 노력한다.
- 2. 다양인 선교자료를 마련해야한다. 현재 "금일중국선교"와 "중국선교회기간"과 같은 선교잡지는 중국선교운동을 잘 소개하고 있다.
- 3. 각 지역에서 선교토론회를 열고 선교중국에 대해 토론해야한다.
- 4. 각 교회와 지역마다 선교중국 기도회를 구성해야한다.
- 5. 중국의 선교운동을 이끌어 갈수 있는 선교인재를 속히 양성해야 한다.
- 6. 각 지역에 선교에 관심 있는 선교교회를 구성하여 교회부흥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 7. 단기선교를 추진하여 지교회에 선교의 관심을 넣어준다.
- 8. "10/40도 창문국가"(회교, 불교, 힌두교, 공산국)에 속해 있는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은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청했는데 약 30명이 단위에 올라왔다. 그 후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도록 청하니 약 200명의 헌신자가 강대상 앞으로 나왔다. 모든 참석자들은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는 결단을 내린 헌신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들의 결단이 변치 않고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통성기도를 하였다.

rohonolulu@gmail.com (끝)



파라과이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기도로 2015년을 은혜 중에 지나게 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 1. 2015년 추수감사 주일 및 성산식과 미니 올림픽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새 생명이 5명 탄생했어요.
- 3개 교회(Aleluya, Amén, Bélen)가 연합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하여 합창, 중창을 하고 각 교회별로 세례를 베풀고 미니 올림픽

수여식 및 23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대학으로 승격하고 처음으로 9명의 학사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고 학업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5. 올해 기도제목 중 신학교 기숙사 건립비 30만불을 놓고 기도했다가 해가 다 가도 응답이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집을 팔겠다고 주인이 왔습니다. 사실 옆집은 어느 장로님이 선교관으로 지었는데 다른데 팔고는 다시 이분이 팔겠다고 합니다. 기숙사로서 안성맞춤이고 앞으로 신학교가 꼭 필요한 건물입니다(3억6천만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듯 한데 신학교가 정식으로 문교부 인가가 나서 올해 처음으로 학사 학위식을 하고 학교의 운영도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숙사가 필요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런 건물이 나올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겠지요. 기도해주세요.



을 진행함으로 협동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팀 선교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2. 기독교 예술학교 2015학년도 졸업식을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유치부 20회, 중학교 15회 졸업식을 가졌다. 중학교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맞이했는데 예절 바른 학교로 소문이 자자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CCA에게 다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3. 2015 한해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학예회를 가졌습니다.

4.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 1회 학위

- 6. 기도 프로젝트를 짜고 있습니다. 1)2016학년 기독교 예술 유치중고등학교와 신학교 개학식 개강 부흥회(강사 박영희 총장) 등을 은혜 중에 치루고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2)2016년 5권역대회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 하도록. 3)2016년도 집사 교사 훈련과 여름 성경학교 등등 은혜 충만하도록. 4)신학교 기숙사 2016년에는 신축할 수 있도록(예산30만불).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jeonggp@hotmail.com

Advertisement for '원문번역성경' (Original Text Bible) in Hebrew and Halleluyah. Features include: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130th Anniversary of Korean Mission), '번역·주석 고영민' (Translated and Annotated by Goyoungmin), '신약 신간' (New Testament New Edition), and '출간예정' (Coming Soon). The ad lists 12 features of the Bible, such as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Commentary based on traditional and biblical interpretation principles) and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A treasure house of biblical commentaries that will lead the faith and theology of the Korean church to a new dimension!).

선교 편지

필리핀 잠보앙가

안녕하세요.

2015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선교지 잠보앙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 5월에 선교지에서 나와서 공선교사를 만나 결혼하였고 여기 잠보앙가에서 헌탁이와 준탁이가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헌탁이와 준탁이는 여기 잠보앙가 지역이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필리핀 친구들이 여기에 잠보앙가에 있고 저희 부모도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까지 4곳 장소에서 기독교 유치원을 설립해서 사역을 하였고, 새희망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문교부 정식 인가학교로 운영하며 사역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째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이 지나가면 2016년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 2015년 12월은 선교지의 저희에게 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한국 사람 한 명이 저희가 있는 잠보앙가 도시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괴한들에게 붙잡혀 갔고 11월 초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저희 잠보앙가 지역을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처럼 나라를 여행 금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국가가 아닌 일반 지역으로 금지시킨 경우는 외교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27일 한국 신문과 인터넷에 잠보앙가, 술루, 따위 지역이 여행 금지 구역이 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을 이곳에서 철수하라고 외교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마닐라에서 영사 한분이 내려 와서 여기 잠보앙가 교민 전체(어른과 아이들 모두 합해서 20여명)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교민

문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저희가 사역해 온 학교를 제대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함께 예배드려온 많은 학생들이 신앙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잠보앙가 지역이 필리핀의 다른 도시보다 좀 외져서 물가도 저렴하고 생활하기도 편한데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면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먼 거리를 이주할 경우 사역이 중단될 가

마닐라에서 6개월 동안 잘 지내고 돌아왔는데 건강한 모습이라 반가웠습니다.

잠보앙가에서 태어나 늘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마닐라로 떠나기 전에는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었는

답으려고 여기 저기 다니며 가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12월은 저희 부모에게 좀 바쁜 시간이 진행됩니다. 올해 12월은

해주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림빠빠 학교는 그동안 2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2월엔 학교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여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합주단(피리, 실로폰, 멜로디온)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마을을 퍼레이드 하였는데 학부모들과 동네 주민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에 학생들이 열심히 출석하여 시상식 때는 상을 나눠 주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말씀을 잘 배워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울 뿐이고 저희가 사역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청소년 예배 때 학생들이 전에 보다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이슬람 회당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코란을 배우는데 우리 예배에 참석하던 학생들을 부모들이 기독교 예배 대신 이슬람 코란 공부를 강요해서, 예배에 많은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저희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제목

- ① 잠보앙가 선교지에 끝까지 남아 사역할 수 있도록
- 선교지 주일학교와 고등부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 ③ 새희망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④ 헌탁이가 대학교 공부를 마닐라에 가서 하고 있는데 늘 건강할 수 있도록
- ⑤ 공윤자 선교사의 무릎이 아픈데 치유될 수 있도록
- 정영운 공윤자 선교사 드림



경찰들이 자주 경호해 준다

은 즉시 외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서류를 작성해서 외교부에 제출하면 10일 뒤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잠보앙가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철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해서 12월 7일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여기 잠보앙가 지역에 남으면 다행이지만 철수를 해야 할 경우 학기 중간이라 헌탁이 학교 교육

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쉽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결정이 부담으로 와 닫고 있습니다. 더욱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상황

헌탁이는 겨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2주간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함께 하는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닐라 UST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1월 5일에 돌아가면 다시 2학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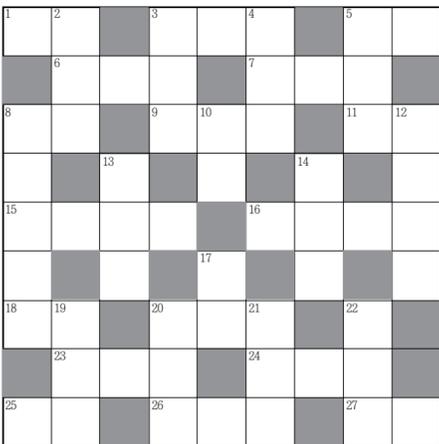
청소년 예배

데 이제는 적응이 많이 되었으나 밥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잘 쉬었다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잠보앙가에서 추억을

외교부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심해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학교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잘 준비

십자말 • Cross Word (112)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집(마16:18).
3. 요아다의 아버지(느3:6).
5.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든 단(왕상1:50).
6. 3층의 다락(행20:9).
7.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
8. 새나 물고기를 잡는 도구(출27:4).
9. 그 민족을 가리켜,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다고 했다(암2:9).
11. 레위족속 그핫의 자손, 예리엘의 아버지(대상6:34).
15. 시나산 근처에 많은 공과에 속한 관목(왕상19:5).
16. 그다랴 때의 암몬 왕(렘40:14).
18. 일정하지 아니한 시간(겔33:22).
20. 옴이 환란 후에 얻은 첫째 딸인데,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욥42:14).
22. 재물을 쌓아두는 창고(신28:12).
23. 허머게네와 함께 바울을 배반한 자(딤후1:15).
24. 떼를 지어 약탈한 물건(삿5:30).
25. 어머니의 자매(레18:15).
26. 예루살렘 북벽, 성역의 북면 하나넬 망대의 동쪽에 있던 망대다(느3:1).
27. 괴로움과 어려움, 고초(창31:42).

<세로 푸는 열쇠>

2. 석회, 세사, 황토를 한데 섞은 물건(사41:25).
3. 솔로몬의 신하 여호사밧의 아버지(왕상4:17).
4. 입의 속집(숙5:8).
5. 한국에서 가장 큰 섬.
8. 유대 낮은 땅에 있던 14읍 중의 하나(수15:36).
10. 어머니의 태 안(민12:12).
12.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동행했다(행27:2).
13. 레위인의 족장으로 음악대장(대상26:29).
14. 두 성읍이 있으니 한 성은 유다 북편에 있는데 일명 기랴아림이다(대상13:6).
17. 꽃 중의 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시가 많음.
19. 남편의 부모.
20. 열가나의 아버지(삼상1:1).
21. 삼손의 부친(삿13:13).
22. 보배로운 물건을 쌓아둔 창고(왕하20:13).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세계한인 기독교 언론협회 독후감 우수상

유혜경

(월드미션대학교 재학, 나성교회 출석)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를 읽고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가 해외한인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 도서를 읽고 믿음의 삶과 사역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코자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에 언론협에서는 김신웅 장로, 백승철 목사, 전인철 목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응모자 중 4명을 선별, 지난해 12월 21일 시상식을 가졌다(관련기사 본보 12월 26일 11면). 본지는 우수상 유혜경 씨의 글을 비롯해 장려상 이승순, 김영국, 김영임 씨의 글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파란 하늘은 저리도 청명한 가을인데, 가쁜 숨 한 모금에 와 닿는 느낌은 아직도 한 여름이다. 지난 한달 여, 두번의 호흡관으로 응급실행과 또 한 번의 쓰러짐을 겪은 나의 몸은 그 어느 해보다 소중하게 가을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흠뻑 땀 흘려 바라는 달력에 새겨진 10월이란 글자의 의미가 무색하도록, 유난히 긴 울해 여름의 이 무더위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가을향기 듬뿍 담은 살랑바람으로 나의 가쁜 숨을 시원하게 띄워 주리라.

20여년전, 어둠의 깊고 긴 시간을 지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이었고, 이후로도 그 하나님 한 분이 내가 살아있음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때마다 신실하게 이끌어 인도해주고 계시며,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때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리의 참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에, 때로는 이 삶이 험경과 지질 때 있어도, '인내'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내던 중, 알리스터 맥그래스가 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한 손에 잡히는 자연스런 색깔의 소재는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주제를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가 집중하게 해주며, 옆에 놓인 한 잔의 커피를 친구삼아 한 장, 한 장, 작가가 끌고 가는 펜 끝의 논리를 따라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 여행에 참여하게 해주었다.

저자 자신이 청소년 시절 무신론에 빠져있던 경험이 있었기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의 질문에 다가가, 사르트르나 도킨스 등 완고한 무신론자의 담들을 서술해보여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의 한계를 차분히 풀어내며, 더 나아가 무신론자 시절 저자 자신 속에 감추어졌던 균중심리와 자기도취적 교만까지 고백적으로 서술하여, 거대한 우주와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의 나아함에 대한 인칭은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큰 그림'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또한, 합리적 이성주의와 과학적 사고 등의 한계를 짚어낼 때, 기독교로 회심하

안경을 종종 쓰기도 한다는 현실임을 완곡하게 짚어준다. 우리가 복음의 렌즈를 통해 볼 때에만, 우리의 진짜 처지인 '죄인'임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진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바른 진단으로 바른 치료법에 이르러 가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큰 그림' 속에서 신조가 갖는 의미는, 피조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불확실한 것들이나 어려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를 믿음 안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해의 틀로서 꼭 필요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풀어준다. 또한 저자는 '신조'를 담아내는 수단인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실재' 사이에 항존하는 상당한 간극을 설명하며 이 한계성과 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더 깊은 실재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파노라마처럼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관념에 머무는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시며 예배와 경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존 던(John Donne)이 사용한 표현처럼, "영광의 넘치는 무게"를 감사로 느끼게도 하시는 결코 몇 마디 말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분이시다.

저자의 기억으로 서술한 표현 중, 복잡하고 클수록 한 눈에 다 보기가 힘들다 한 것 같이 우리는 신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신 '어떠함' 속으로 초대되어진 축복받은 자이다. 믿음의 삶은 걸어가며 때로는 고난의 풍랑 가운데 놀라기도 하고, 더디 말씀하시는 듯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 인내해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말씀을 성령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따라가노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이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길이였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끄심을 또한 고백하게 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소망 중에 인내하며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이제는 자발적 기쁨으로 '발교'에서 서서 바라보는 '자'이기보다는 '길' 위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순례자' 되기를 순종하게 더욱 이끄시리라.

주님, 이 긴 여름 끝나고 가을은 분명함을 믿듯이, 믿음의 경주 후에 기쁨으로 추수할 곡식 많은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가난한 마음(마5:1-3)찬27장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의 5-7장은 복의 상태를 알리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른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훈을 받은 것처럼 그 나라 왕은 그의 백성의 기초가 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첫째, 이

것은 자신의 천박한 상태를 발견함을 말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절대 가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과 중생의 시작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천국 곧, 임마누엘을 누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발견으로 시작합니다. 새해의 목표를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데 돕시다.

화 애등하는 마음(마5:4)찬337장

자기 실상을 발견한 자는 도움 자가 없으므로 애등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가난을 바라보고 절망 의식으로 인해 울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알 때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오

직 성령에게 오는 열매입니다. 그가 진정의 지할 대상이 오직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알 때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때 절망 의식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9절의 은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 때 그는 신령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수 은유한 마음(마5:5)찬347장

성령으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 자는 은유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성공 원리였고 교회가 누려야 할 목표이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와 같이 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때 평안이 있고 용서

가 있고 땅을 다스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은유한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세상의 용맹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은유한 마음으로 이깁니다. 그 능력으로 찬탄합니다.

목 갈망하는 마음(마5:6)찬405장

은유한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모의 영으로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왕과 그의 선물이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그의 의가 좋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기 나온 의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늘의 부요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한 마음 곧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시 23:1)는 참 만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갈망으로 찬탄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금 들쌍이 여기는 마음(마5:7)찬422장

앞의 네 가지 복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음 네 가지는 이웃 관계에서 이루어진 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첫 복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첫째, 이것은 이웃을 들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리킵니다. 남의 연약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은 성령이 일하시

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둘째, 그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토 청결한 마음(마5:8)찬184장

다음으로 청결한 마음이 복입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룩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의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의를 가진 마음이야 하며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청결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자신의

죽음으로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로 믿음으로만 의를 얻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오직 성령이 일하심으로 생겨집니다. 셋째, 청결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체현적인 교제의 앎을 가리킵니다. 그 지식이 사랑이고(딤후2:15) 영생입니다(요17:3). 한 마디로 이것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는 성도가 항상 경계해야 할 복입니다. 그 복된 세계로 나아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2643-8553-8,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부동 713-26호</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3339-9, Fax: (031)977-8382 (우)410-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02)1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16-3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0-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8,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부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8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로 17길 29(일암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 (0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동 258-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양곡읍 양곡로 415 www.yangokg.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침례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대담 최찬영 목사 초기 타문화권 선교사

일시: 2016년 1월 6일 오전10시-정오
장소: 미주크리스천신문 LA 본사
대담: 송종록 목사(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회장, 수필가)



선교는 하나님의 일... 사람생각 앞서면 성령 역사 못한다

새해 첫 주 현재 LA를 방문 중인 한국 초기 타문화권 선교사 최찬영 목사부부를 본지 선교칼럼니스트 송종록 목사가 본사 LA사무실에서 만났다. 한국 선교 역사와 세계 선교 비전에 대한 은퇴 노 선교사와의 대담을 통해 21세기 선교에 도전 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대담내용. [편집자]

최찬영 목사와 최광명 사모는 대한민국 해방 후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이다. 최찬영 목사부부는 1955년 4월 24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최 목사부부는 1992년 은퇴까지 37년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교사로서 교단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였다.

주된 사역으로는 1978년부터 15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서공회 총무로서 태평양 지역의 성경보급에 힘썼다. 특히 1987년에 중국 난징(南京)에 애덕인쇄소를 설립하여 역대의 성경을 발간되는 일에 산파역할을 하였다.

선교사로서 은퇴한 후에도 원로로서 후진양성과 각종 집회에서 말씀강사로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최선교사님 부부는 사역내용도 자랑스럽거나와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된다.



다. 내는 제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재정 등을 책임졌어요. 따라서 아내가 없는 제 인생을 생각할 수 없어요. 바람은 둘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로 갔으면 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가정적으로 소원하는 바가 있으시나요?

제 아내 최 사모가 16년 전에 몸에서 인술린이 안 나온다는 일행

결정 못하겠습니까?

-65세로 은퇴하시기 전까지 37년간 사역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사역은 무엇이였습니까?

태국교회와 협력하며 성서를 출판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성서공회 총무로서 중국에 애덕인쇄소가 생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2015년 말까지 그곳에서 찍어낸 성경이 1억4천만 권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요.

-선교사로 사시면서 주로 힘들었던 분야는 어떤 것이였습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한국에서 선교사

LA의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며 여기저기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선교 진단

-선교 원로로서 현재 한국선교를 진단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OMF, C&MA와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를 순회함으로 보는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선교는 그 열정과 헌신도 면에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 분파적이고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킹덤을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일하며 모두가 섬기는 중의 신본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

하고 준비해 쓰임 받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선교적으로 이 시기를 황금기라 여깁니다.

-현재 세계 170국에 약 27,000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격려의 말씀 주시지요.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덧입어 해야지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해요. 아무튼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 선배로서 전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라는 사람이나 재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전진하는 승리의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미주 4600개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타향생활이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가 고독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많은 위료가 필요해요. 이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며 한민족 통일과 미국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시면 합니다.

인터뷰 소감

2016년 1월 6일 수요일, LA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엘리노 현상으로 상당한 비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선교사님은 몸이 편찮으신 사모님을 대동하고 손수 운전해 신문사까지 오셨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신 분! 사람을 좋아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편하게 맞아주시는 최선교사님을 나는 국제 신사(International Gentleman)라 부르고 싶다.

이런 분이 한국교회 선민 선교사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처럼 아니 해변가의 풍찬노숙을 이겨낸 노송처럼 나도 저렇게 티 없이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송종록 목사)

한국 선교, 열정과 헌신도 면에서 우수하나 분파적이고 조급한 게 문제

아태성서공회 총무로 애덕인쇄소 설립 주도...작년까지 성경 1억4천만권 인쇄

미국 전체가 선교지...은퇴 후 20년 황금기 통일과 세계선교에 헌신하길

인사와 소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감은 어떠신지요?

올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울 것 같아요. 년 초부터 중국의 경제 파동이 일고 있잖아요. 중동의 사우디와 이란이 대립하고 있고, ISIS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을 위협할지 알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도 총선이 있어요. 예측컨대 썩 밝은 해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나지요.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 큼니다.

-최 선교사님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게 보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저를 잘 아는 한 분이 "30년 전이나 90세인 지금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덕담이겠지요. 내게는 특별한 건강의 비결이 없습니다. 단지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생활습관

이 몸에 배었습니다. 건강의 최대 장애물은 스트레스라 생각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지요. 그렇지 못할 때 인생이 고단하고 건강도 쉬이 나빠집니다.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올해로 결혼 61주년이 되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지요. 처음 만나 후 3일 만에 약혼식하고 약 두 달이 지난 즈음 1954년 11월 24일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연애기간이 없어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짝이 준 배필이라 확신했기에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지요.

-책에 보니 두 분이 시간 나는 대로 손을 잡고 산에 오르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금실이 좋은 비결은요?

하나님이 짝이 주신 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사 누구라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하며 상대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배려하며 가정을 가꾸어가야지요. 아내의 제게 정말 뼈 쫓는 빠입니

당뇨병 걸렸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퇴보하고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이상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출가한 자녀들과 7명의 손자들이 강건하며 믿음으로 사는 해가 되길 바래요.

헌신과 선교사역

-1950년대 한국교회 상황에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의 실상과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당시는 선교가 없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지요. 그 때 우리나라는 GNP가 63달러로서 세계에서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가난했습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3배가 더 잘 살았지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계기는 간단합니다. 전 6.25 때 인민군에 잡혀 3년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9살이었는데 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무엇인들

로 나왔기에 처음에는 태국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선교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조력자(Fraternal Worker)처럼 대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깍듯이 대하는데 비해 저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는 제가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유익을 주었지요. 물론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교사로서 돌아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계 인구의 2/3가 있는 대륙에서 성서보급을 위한 지도자로서 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행정적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도하고 양육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풀러(Fuller)신학교에서 5년간 교수로 봉사했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께서 더 크게 기쁨 부으실 것입니다.

-해외 한인 이민교회가 약 5,500개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가요?

피터 와그너 교수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은 60% 기독교이다. 디아스포라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교회자체가 선교적으로 동원되어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을 선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전체가 선교지입니다.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Golden Missionary를 언급하셨습니다. 좀더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무척 길어졌습니다. 옛날 60이 현재 80이 되었지요. 따라서 덩으로 받은 인생 20년을 하나님께 받겠다는 무브먼트(Movement)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부터 계획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rd Missional Church Seminar

2016.3.14(월)-16(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한국일 교수

선교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 교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들
역서: 선교학 사적(공역)
저서: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들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NCKPC/PCUSA 총회장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어떻게 리더십은 어떻게



신광섭 교수

선교적교회
Intercultural Studies
Visiting Professor of Missional Church Education,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노승환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박태은 장로

주예수교회 장로
지역사회 선교사역
선교위원장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영상(Practicum) 노숙자 숙박 사역(CARITAS/Homeless Shelter), 노숙자 급식 사역(Monroe Park/Soup Kitchen), 빈민촌 주택보수(Project: Homes/Renew Crew), 산골빈민촌사역(Appalachian Service Project), 지역사회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Korean Food Festival) 숙박 Four Point Sheraton Hotel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 주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관 주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PCUSA)

협력 센트럴 신학대학원 (CBTS/D.Min Program)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주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 560-7500/7509 | WWW.LJKC.ORG